

##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韓 盛 旭\*

###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 |
| II. 高麗 後期の 陶瓷史的 背景  | V. 맺 음 말            |
| III. 高麗 後期 編年資料의 檢討 |                     |

### I. 머리말

고려 후기는 武臣政權과 權門勢族에 의한 파행적 정치 등 내적 요인과 對蒙抗爭을 비롯한 紅巾賊과 倭寇 猖獗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고려의 쇠퇴기로 왕조의 몰락을 재촉하는 시기였다. 靑瓷도 12세기대 절정을 이루었던 翡色靑瓷의 質이 하락되어 釉色과 胎土의 질이 저하되고, 器形은 대형화되면서 鈍重해 지며, 文樣은 소략화되거나 생략되는 등 조잡해진다. 이런 쇠퇴기의 경향은 새로운 도자 전통을 잉태하여 朝鮮 粉靑瓷로 발전하고 있어 고려 후기 청자의 연구는 청자의 쇠퇴와 분청자로의 이행 과정을 밝힐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sup>1)</sup>

고려시대 청자의 성격은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빈약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고려 후기 역시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明宗 智陵 등 고분 출토품과 상대 연대를 제공하는 干支銘 등의 銘文靑瓷, 하한 시기를 알 수 있는 珍島 龍藏城 등의 유적 출토품 등이 있으나 이들과 함께 출토되는 公伴 유물이 많지 않아 명확한 편년 설정이 어렵다. 또한 편년을 알 수 있는 건물지 발굴 조사 자료를 명문 자료들과 적극적으로 비교 검토하지 않고 가마터 수습 청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 松廣寺 聖寶博物館

1) 이 글에서의 고려 후기는 대몽항쟁(1231~1273년)으로 정치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13세기 중반부터 고려가 망하는 14세기 말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즉, 후기 청자의 연구는 편년 유물과 가마터 조사, 왕의 재위 기간, 對元·對倭 관계 등이 미친 정치 경제적 배경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들은 대몽항쟁(1231년)을 시작으로 청자의 질적 쇠퇴와 생산지 확대, 수요층 확산을 강조하면서 이 시기를 고려 청자의 쇠퇴기 또는 후기로 파악하고 이것이 분청자로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 의해 상대 편년은 대체로 갖추어졌으나, 절대 연대와 기형 변천에 대한 틀이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干支銘 靑瓷을 후기 청자의 대표적 유물로 보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그 시기를 「己巳」銘을 중심으로 1269년 또는 1329년으로 파악하는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sup>2)</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문헌 기록과 유적 위치, 유물의 출토 층위가 뚜렷하여 편년이 확실한 유적 출토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 변천을 밝히고자 한다. 이들 자료는 墓碑와 墓誌가 확인된 古墳, 銘文瓦 출토 건물지, 기록이 정확한 유적 등의 출토품을 이용하였다. 또한 절대 연대를 갖는 「至正」·「正陵」銘 靑瓷 등과 절대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干支銘 등의 銘文靑瓷을 함께 이용하였다.

## II. 高麗 後期の 陶瓷史的 背景

고려 후기는 對蒙抗爭과 元 간섭기, 紅巾賊의 난, 倭寇 猖獗 등의 대외적 요인과 내적으로는 武人執權과 權門勢族에 의한 파행적 정치와 경제적 수탈로 사회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고려 사회를 혼란과 쇠퇴기로 빠뜨렸던 몽고 침입이 청자 생산의 중심지인 전라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몽고의 제3~6차 침입 때이다. 특히 3-2차(고종 23년: 1236) 침입 때 全北 全州와 古阜, 扶安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6-2차(고종 43년: 1256) 침입 때 비로소 海陽(光州)과 羅州 등 全南地域까지 영향을 미쳤다. 청자 제작의 중심지인 大口所(康津地域)

2) ① 高裕燮著·秦弘燮譯, 『高麗靑瓷』(三星美術文化財團, 1977).

② 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립의 編年研究』(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③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사회과학출판사, 1995).

④ 方炳善, 『高麗象嵌靑磁의 발생에 따른 상감문양의 고찰』(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⑤ 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⑥ 李鍾攷,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⑦ 鄭良謨, 『干支銘을 통해 본 高麗後期 象嵌靑磁의 編年』,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⑧ 崔 健, 『高麗時代 後期の 象嵌靑磁와 陶磁觀에 關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⑨ 崔淳雨, 『高麗陶磁의 編年』, 『世界陶磁全集』18, 高麗(小學館, 1978).

⑩ 野守健, 『高麗靑磁의 研究』(清閑舍, 1944).

는 자세한 기록은 없으나 이 지역의 巨刹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던 白蓮社의 靜明國師 天因이 고종 34년(1247) 몽고 난을 피해 莞島 法華社로 피난간 것으로 보아<sup>3)</sup> 6차 침입 시에는 이 지역도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무신정권에 의한 중앙 통제가 대체로 원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이 유지되었다. 즉 崔怡는 그의 孽子인 萬宗과 萬全을 이 지역 寺刹에 출가시켰고,<sup>4)</sup> 이들은 몽고의 피해가 적었던 오늘날의 慶尙南道와 全羅南道에서 官穀을 이용 막대한 殖利를 취하여 정권을 유지하였다. 이들 財貨는 남해안의 해상 漕運路를 통해 江都로 집결되어 高麗大藏經을 제작하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sup>5)</sup> 따라서 元은 江都 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자 6차 침입시 주목적을 남해안 공략으로 설정하여 1256년 3월~8월까지 이 지역을 계속 침입하였다.<sup>6)</sup>

한편 三別抄는 元宗 11년(1270) 8월 珍島를 중심으로 대몽항쟁을 계속하였다. 珍島에 본기지를 둔 것은 조운로를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남해안 지역에 폭 넓은 해양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또한 濟州 이동 후에도 稅收 확보를 위해 元宗 13년(1272) 5월 耽津縣 공격을 비롯해 남해안 지역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sup>7)</sup> 이 지역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몽항쟁기 청자 생산은 초기에는 중앙 통제에 의해 그 질이 유지되었으나 항몽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질이 떨어졌다고 추정된다. 이는 1257년에 죽은 崔沆 墓에서 출토된 靑磁辰砂蓮瓣文瓢形注子와 珍島 龍藏城, 濟州 法華寺, 莞島 法華寺 출토품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항몽의 장기화는 도공들의 流離를 초래하여 청자 生産地의 擴散과 大量 生産, 需要層의 擴大를 촉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대몽항쟁 이후 元의 경제적 수탈과 權門勢族의 土地占奪, 紅巾賊의 亂, 倭寇 猖獗 등은 고려의 사회 경제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특히 忠定王 2년(1350)부터 시작된 왜구의 본격적 침입은 穀倉의 中心地로 남해안에 위치한 전라도에 많은 피해를 주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大口所가 있던 耽津縣의 界首官이던 長興都護府를 비롯하여 珍島縣과 壓海縣, 興陽縣 등이 治所를 내륙으로 옮기고 있다.<sup>8)</sup> 耽津縣에 대한 왜구의 침입은 恭愍王 21년(1372)의 기

3) 林桂一, 『萬德山白蓮社靜明國師詩集序』 『東文選』 卷83, …丁未冬 避胡寇入象王山法華社…  
 4) 『高麗史』 93. 列傳 6. 崔沆條. 崔沆(萬宗)은 晉州 斷谷寺와 和順 雙峰寺 住持를 역임하였다.  
 5)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 1991), pp. 208~213.  
 6) ① 김승환, 「三別抄 抗爭과 全南」, 『全羅南道誌』 3(전라남도, 1993) pp. 215~231.  
 ②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 1991), pp. 40~132.  
 7) 김승환, 「三別抄 抗爭과 全南」, 『全羅南道誌』 3(전라남도, 1993), pp. 231~252.  
 8) ① 『世宗實錄地理志』 長興都護府條.  
 …麗季因倭寇 僑徙內地 本朝太祖元年壬申 築城于遂寧縣之中寧山…  
 ② 『東國輿地勝覽』 康津縣 古跡 修因山城條.

록이 있으며, 大口所와 마주보고 있는 白蓮社의 폐허를 통해서도 그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sup>9)</sup> 또한 全羅北道 扶安地域도 恭愍王 7년(1358)과 禡王 2년(1376)에 왜구의 침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왜구의 잦은 침략은 도자 생산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으며 匠人의 流離를 재촉하여 청자의 질을 더욱 퇴락하게 하였다.

한편 대몽항쟁 이후 저하되는 청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앙 통제의 수단으로 干支銘과 官司銘 등의 銘文 청자가 등장한다. 그러나 왜구의 잦은 침입과 중앙 통제의 해이 등으로 청자의 질은 더욱 쇠퇴하게 되는데 이는 왕실용인 「正陵」銘 靑瓷의 질적 하락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지방 통제의 해이와 왜구의 피해는 日本 大宰府에서 출토된 「正陵」銘 접시편에서도 알 수 있다.<sup>10)</sup>

고려는 財政과 物産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다양한 所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생산 물품을 常貢과 중앙各司의 요구에 의한 別貢을 통해 공납하였다.<sup>11)</sup> 所는 任內地域으로 국가의 주관 아래 州府郡縣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에 의한 이중적 수탈 관계에 놓여 있었다. 즉 지방 관리의 특수 지역이었으나 중앙의 각 기관이 필요 물품을 직접 수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sup>12)</sup> 所制度는 12세기 이후 점차 붕괴되는데, 특히 抗蒙 이후 元의 지나친 공물 요구에 의한 과중한 貢役 부담과 권력층의 所 지역 점탈 등으로 더욱 촉진되었다.<sup>13)</sup> 所民의 유리는 일차적으로 각종 수탈에 그 원인이 있지만 상업의 발달로 타지역에서도 생계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sup>14)</sup> 또한 소의 붕괴로 元에서 요구한 물품을 일반 郡縣에 부과하였는데 이는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수취체제가 문란하여 공물을 징수 하도록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이 사복을 채우고<sup>15)</sup> 향리들과 결탁하여 불균등한 役制를 운영하여 민의 유망이 보다 확대되었다. 이들 부정한 물품과 대규모 農場의 高利貸, 토지에서의 잉여 생산물 역시 상업 발전을 촉진하였다. 상업의 발전은 수공업자들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역으로 所와 官工匠이 더욱 붕괴되는 역할을 하였다.<sup>16)</sup>

…高麗末 道康 耽津 寶城 長興 靈巖之民 皆避倭寇于此.

9) 『東國輿地勝覽』 康津縣 佛宇 白蓮社條. …尹淮記…世傳 創始於新羅氏重新於高麗圓妙師 傳至十一代無畏師 恒爲法華道場號 東方名利 聖島夷陸梁 負海奧區鞠爲丘墟 寺亦隨其盛衰惟…

10) 森田勉, 「北部九州出土の高麗陶磁器-編年試案-」, 『貿易陶磁研究』 5(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85), pp. 19~27. 이 시기 일본은 남북조로 대립하던 때로 고려의 공식 외교 관계는 북조와 이루어지고 있어 남조 세력권의 大宰府에서 「正陵」銘이 출토된 것은 왜구의 약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1) 金炫榮, 「고려시기의 所에 대한 재검토」, 『韓國史論』 15(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6), p. 117.

12) 田炳武, 「高麗時代 銀流通과 銀所」, 『韓國史研究』 78(韓國史研究會, 1992), p. 98.

13) 李貞熙, 「高麗時代 徭役의 運營과 그 實態」, 『釜大史學』 8(1984), p. 64.

14) 이정진, 「高麗時代 중이의 생산시대와 紙所」, 『韓國史學報』 5(고려사학회, 1998), p. 239.

15) 『高麗史節要』 34, 恭讓王 元年 12月條.

…(壬寅) 司饗每年 遣人於各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馱載 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二 餘皆私之 弊莫甚焉…

所民의 유망은 瓷器所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는 소규모 집단에 의한 분업화 전문화되지 못한 생산과 직결되어 청자의 質的 下落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청자 생산의 擴散과 需要層의 擴大를 가져와 陶瓷 上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7)</sup> 또한 이 시기는 전국에서 도자를 생산하여<sup>18)</sup> 鐵器나 鋤器를 瓷器로 대체할 것을 전의할 정도로 충분한 생산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sup>19)</sup> 이를 반영하듯 고려 후기가 되면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한 각종 생활용 청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sup>20)</sup>

도자 제작은 중앙 관직인 諸窯直과 六窯直의 존재로<sup>21)</sup> 보아 이들의 監造 하에 실시되었으며 후기에는 司饗寺에서 관리하였다.<sup>22)</sup> 육요직과 제요직은 『高麗史』 食貨志 내용으로 보아 같은 관직으로 六窯를 諸窯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육요직은 權務職으로 祿俸이 얼마 지급되지 않은 臨時職이며<sup>23)</sup> 司饗寺는 祿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책이다.<sup>24)</sup> 따라서 후기에 이르면 이들에 의한 폐단이 매우 많았다.<sup>25)</sup> 즉 所는 말단 관리로부터 상부 권력층에 이르기까지 침탈의 대상이 되면서 해체가 더욱 가속화되었는데<sup>26)</sup> 康津의 大口所도 지역 세력집단인 耽津崔氏와 長興任氏에 의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다.<sup>27)</sup> 따라서 고려 후기는 중앙 정부의 통제 이완과 所의 해체 등에 의한 장인들의 流離 擴散과 이에 따른 생산지 확대, 상업의 발달 등으로 靑瓷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함께 청자의 질적 쇠퇴가 가속화되었던 시기이다.

16) 이정신, 주 14) 전계서, pp. 255~256.

17) ① 『高麗史』 89, 列傳 2, 后妃 2, 銀川翁主林氏條

銀川翁主林氏 商人信之女 丹陽大君之婢也 賣沙器爲業 王見而幸之有寵.

② 李齊賢, 『益齋亂藁』 4, 小樂府條, 耽羅地狹民貧 往時全羅之賈販瓷器稻米者時至而稀矣….

18) 주 15) 사료.

19) 『高麗史』 85, 志 39, 刑法 2, 禁令條, (恭讓王)三年(1391)三月 中郎將房士良上疏…鑄銅本土不產之物也 願自今禁銅鐵器專用瓷木以革習俗.

20)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88~89.

21) ① 『高麗史』 80, 志 34, 食貨 3, 祿俸, 權務官祿條.

權務官祿 文宗三十年定…八石十斗…諸窯直…仁宗朝更定 : 八石十斗 六窯直….

② 『高麗史』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條, 諸窯直.〔丙科權務.〕

22) 宋聖安, 「高麗前期 瓷器手工業-瓷器所를 中心으로-」, 『慶大史論』 제8집(慶南大學校史學會, 1995), pp. 54~58.

23) 『高麗史』 78, 志 32, 食貨 1, 田制, 祿科田 恭讓王 3年(1391) 5月條

祿俸은 관품에 비해 대개 낮게 설정되어 통과된 지급 기준 제18과로 최하위이다.

24) 『高麗史』 118, 列傳 31, 趙浚條, …司饗古之尙食而 今之司膳也 今則司設食其祿而廢其職 司幕勤其事而不食祿 司饗以下之職亦然.

25) 주 15) 사료.

26) 이정신, 「高麗時代 종이의 생산실태와 紙所」, 『韓國史學報』 5(고려사학회, 1998), p. 257.

27) 李海濬, 「康津地域 高麗靑磁의 發達 背景」, 『康津의 靑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 1992), p. 368.

### Ⅲ. 高麗 後期 編年資料의 檢討

#### 1. 遺蹟出土 靑瓷

##### (1) 生活 遺蹟

생활 유적은 문헌 자료와 출토 유물을 통해 그 하한 시기가 확실한 珍島 龍藏城과 莞島 法華寺, 濟州 法華寺 출토품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13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유적들로 출토 청자는 器形과 釉色, 文樣, 燔法 등 제작 수법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濟州 法華寺 출토 靑瓷 象嵌荔枝文大椀과 明宗 智陵 출토 靑瓷 象嵌荔枝文大椀은 모든 문양이 매우 유사하며, 莞島 法華寺 출토 靑瓷 象嵌雙魚菊花牡丹文大椀도 외면 문양이 이들과 유사하다. 또한 유색도 매우 유사하여 이 시기까지 전성기 청자의 제작 수법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진 1~3). 즉, 12세기대 전성기 청자와 14세기대 말기 청자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平底鉢과 馬上杯 등은 14세기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13세기 이후 소멸된 기형으로 추정된다.

##### 1) 珍島 龍藏城<sup>28)</sup>(1271년)

진도 용장성은 대몽항쟁기 삼별초가 제주로 철수한 후 몽고의 주도로 麗蒙 연합군에 의해 소실된 유적이다. 따라서 삼별초의 제주 철수 시기인 元宗 12년(1271) 5월이 하한임을 알 수 있다. 이곳 출토품 중 하한 시기가 정확한 排水路 등 안정된 층위의 청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곳에서는 생활 容器인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透刻墩과 瓜形瓶 등 다종 다양의 청자들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正陵」銘靑瓷 등 14세기대 同種 器形에 비해 대부분 그릇이 작고 기벽이 얇으며 기형이 날렵하다. 문양은 간략하지만 단정하며 상대적으로 순청자의 비중이 높다. 釉色은 翡色에는 미치지 않으나 14세기대 청자에 비하면 비색에 가까운 색상을 유지하고 있다. 받침은 규석이 가장 많으며 耐火土 받침과 가는 모래, 규석 가루 등을 받쳐 대부분 匣燔하였다.

##### 2) 莞島 法華寺<sup>29)</sup>(1271년)

대몽항쟁을 이끌었던 白蓮結社 및 三別抄와 관련된 사찰로 특히, 珍島 龍藏城과 동일한 막새가 출토되어(그림 1·2) 그 하한을 삼별초의 제주 후퇴 시기인 1271년 5월로 파악하고 있다.

28) 崔盛洛, 『珍島龍藏城』(복포대학교박물관, 1990).

29) 문화재연구소, 『莞島 法華寺址』(1992).



사진 1. 明宗 智陵 靑瓷象嵌荔枝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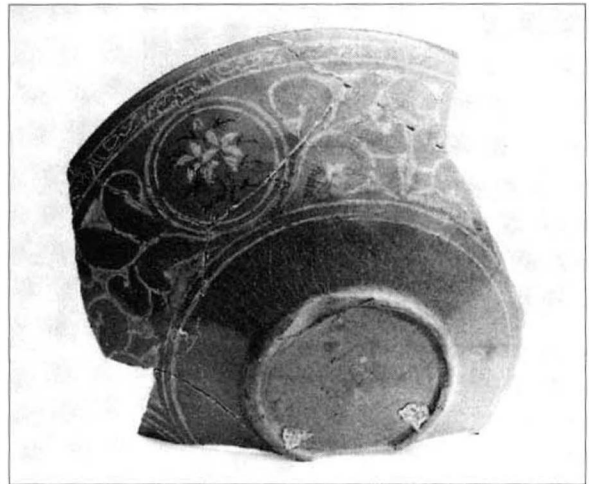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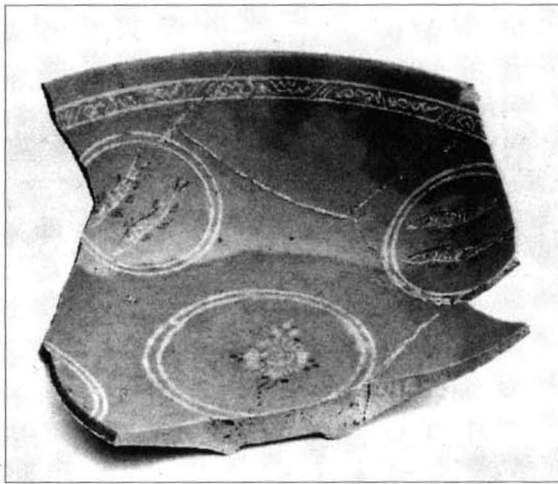


사진 2. 莞島 法華寺 靑瓷象嵌雙魚菊花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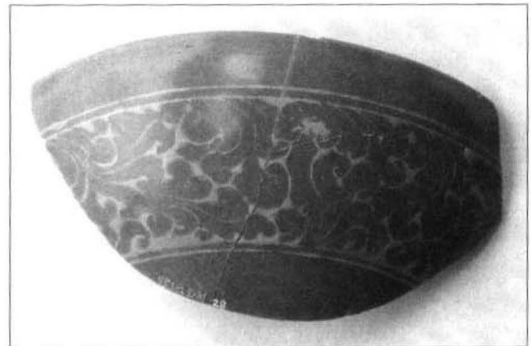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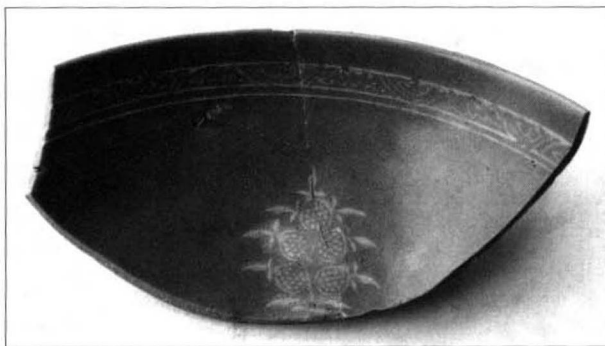


사진 3. 濟州 法華寺 靑瓷象嵌荔枝文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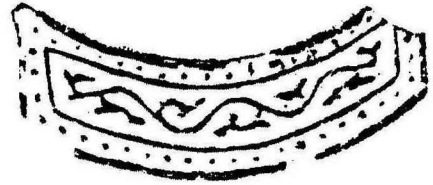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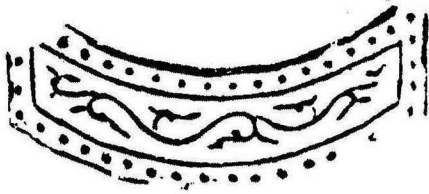


그림 1. 珍島 龍藏城 出土 암숫막새

그림 2. 莞島 法華寺 出土 암숫막새

건물지 5 북동편 석축 아래에서 출토된 청자들이 이 시기를 대표하고 있는데 생활 용기인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으로 일부 儀禮 容器인 香爐臺 등이 확인된다. 이들은 순청자의 비중이 높으며 기형이 작고 기벽이 얇다. 문양은 이전에 비해 간략화 圖式化되었으나 사실적 문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전성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색도 비색의 여운을 지니고 있다. 내화토 받침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규석 받침을 받치고 全面 施釉 후 번조하였다.

### 3) 濟州 法華寺<sup>30)</sup>(1279년)

제주 법화사 출토품은 일상 생활 용기인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자가 출토되었다. 특히 「至元六年己巳始重柵十六年己卯畢」銘 기와가 瓦積層에서 출토되었는데 이곳 출토 청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하한 시기가 1279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순청자류의 비중이 높으며 문양 구성은 간략하지만 사실적으로 표현된 圖式化 이전 단계의 것들이 많다. 유색도 비색의 여운이 남아 있는 녹색조가 대부분이며, 기형도 기벽이 얇고 단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규석과 내화토 빚음을 받쳐 全面 施釉 후 번조하였다.

### (2) 古墳

古墳 출토품은 陵과 墓, 舍利塔 출토품을 함께 정리하였다. 고려 고분은 대부분 도굴이 쉬운 石室墳으로 축조되어 있어 明宗 智陵을 제외하고는 출토품이 매우 빈약하다.

30) 제주대학교박물관, 『法華寺址』(1997).

1) 開豐 古南里 神宗 陽陵<sup>31)</sup>(1204년: 사진 4)

開城市 開豐郡 古南리에 있는 神宗의 묘로 1204년 축조하였다.<sup>32)</sup> 출토 유물은 도굴로 인해 청자상감국화문 합뚜껑과 청자상감모란문대접편, 청자상감운학문대접편 등 소량 출토되었다. 국화문 합뚜껑은 중앙에 2重圓圈을 돌린 후 내부에 국화를 배치하였고 주변에는 4개의 국화를 등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반듯하게 내려 간 입술부에는 雷文帶를 시문하였다. 主文樣 배치는 1301년 松廣寺 慈靜國師妙光塔 출토 舍利盒 뚜껑과 매우 유사하다(사진 4·5). 그러나 妙光塔 출토품은 중속 문양인 雲鶴文이 全面에 팍차게 시문된 반면 陽陵 출토품은 중속 문양이 없다. 모란문대접은 등간격의 모란문과 구연부 뇌문대만을 사실적으로 시문하였다. 그러나 운학문대접은 印花象嵌을 전면에 시문하여 14세기의 특징인 略化된 印花技法을 보여주고 있다. 유는 회청색과 청록색으로 발색 상태가 좋다. 이들 양릉 출토품은 13세기대와 14세기대의 청자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국화문합의 경우 사실적이며 단순한 문양 구성이 妙光塔에 이르면 전면에 시문하는 복잡한 구성으로 바뀌고 있으나, 운학문대접은 14세기대의 특징인 약화된 인화문을 전면에 팍차게 시문하고 있다. 약화된 운학문은 간지명 中大樑<sup>33)</sup>과 14세기 말의 무안 도리포 출토 대접<sup>34)</sup> 문양과도 연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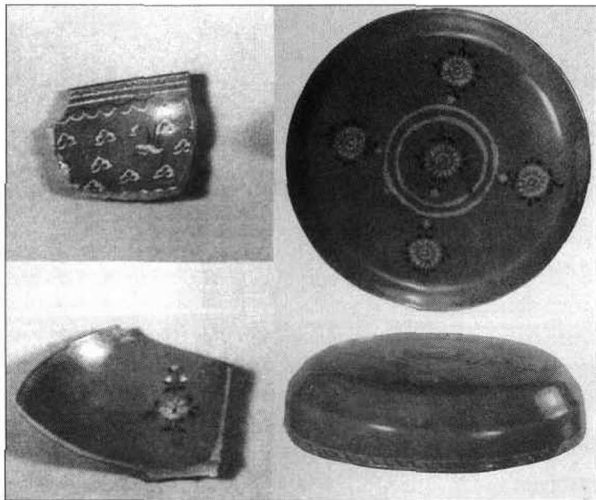


사진 4. 神宗 陽陵 象嵌靑瓷



사진 5. 松廣寺 慈靜國師妙光塔 舍利盒

31) ① 김중혁, 「개성일대의 고려왕릉발굴보고(2)」, 『조선고고연구』 2(1986), pp. 32~36.

②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1992), p. 21, p. 23, p. 219.

32) 『高麗史』 21, 世家 21, 神宗 7年(1204) 正月條

丁丑王移御德陽侯邸遂薨…諡曰靖孝 廟號神宗 葬于城南陵曰陽陵.

33) 海剛陶磁美術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1991), p. 15, p. 23, p. 28.

34)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1995), p. 28.

2) 長湍 杜梅里 明宗 智陵<sup>35)</sup>(1255년: 그림 4-1)

京畿道 長湍郡 長道面 杜梅리에 있는 明宗의 묘로 1202년 축조하였으나<sup>36)</sup> 1255년 몽고의 파괴로 수축하였다.<sup>37)</sup> 지붕 출토 청자는 좌우 대칭의 비례감을 일부 잃고 있으나 기벽이 얇고 날렵한 기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釉는 일부 綠色調가 짙어지고 탁한 색을 띠고 있으나 비색의 여운이 남아 있다. 문양 구성은 간략하지만 전성기 양식을 따르고 있다. 굽은 매우 단정하게 成形하였으며 굽 바닥에 硃石을 받치고 全面 施釉 후 燔造하였다. 이곳 출토 청자들은 13세기 중후반의 珍島 龍藏城과 莞島 法華寺, 濟州 法華寺 출토품과 비교하면 보다 전성기 비색 청자에 가깝지만 기형과 문양, 유색 등 제작 수법이 매우 유사하여 陵의 수축시기인 1255년 내남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靑瓷象嵌荔枝文大槩의 문양과 유색 등은 莞島 法華寺 靑瓷象嵌雙魚菊花牡丹文大槩과 濟州 法華寺 靑瓷象嵌荔枝文大槩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여 이를 뒷받침한다.(사진 1~3).

3) 江華 崔沆墓<sup>38)</sup>(1257년)

江華의 崔沆 묘에서 墓誌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靑瓷辰砂蓮瓣文瓢形注子(국보 제133호)만 알려져 있다. 이 주자는 陰陽刻과 彫刻, 辰砂彩, 鐵砂, 堆花 등 다양한 제작 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호화롭게 제작하였다. 기형은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성기에 비해 유려하지 못하다. 전면에 蓮瓣文을 중첩 시문하였으며 연판문의 경계는 辰砂彩로 구분하였다. 釉色은 전성기 靑色靑瓷에 비해 떨어지지만 맑은 담녹색이며 빙결은 없다. 굽 깎음새가 단정하며 내화토 빚음을 받쳐 燔造하였다. 이 시기는 대몽항쟁기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를 통해 전성기 청자의 전통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開豐 해선리 莊穆王后 高陵<sup>39)</sup>(1297년)

開城市 開豐郡 해선리에 있는 忠烈王妃 莊穆王后의 묘로 1297년 축조하였다.<sup>40)</sup> 이곳 출토

35) 海剛陶磁美術館,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1991), pp. 39~40.

36) 『高麗史』 21, 世家 21, 神宗 5年(1202)條

(十一月)戊午 前王(明宗)薨于昌樂宮...閏(十二)月壬寅 葬明宗于智陵.

37) 『高麗史』 24, 世家 24, 高宗 3, 高宗 42年(1255) 3月條

己未 命判司天事安邦悅脩智陵 以爲蒙古所壞也.(전성기 영릉의 파괴는 건립품 확보를 위한 수단이므로 출토품은 수축시의 양상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8) 湖巖美術館, 『大高麗國寶展』(호암갤러리, 1995), pp. 137, pp. 305~306.

39)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129, pp. 140~141.

도면과 사진이 게재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

40) 『高麗史』 31, 世家 31, 忠烈王 4, 忠烈王 23年(1297)條

(五月)壬午 公主薨于賢聖寺...(八月)己未 葬安平公主于高陵.

상감청자는 어두운 회청색을 띠며 문양은 물결무늬와 連珠文이 단순 반복 시문되었다. 1332년 도굴 기록이 있어<sup>41)</sup> 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다.

5)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 出土 靑瓷象嵌雲鶴文盒(1301년: 그림 16-3, 사진 5)

順天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에서 출토된 舍利 容器用 靑瓷象嵌雲鶴文盒(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8호)이다. 합 뚜껑은 원형으로 구연부는 어깨부의 연판문대 위 아래를 맞추어 2단으로 꺾은 후 수직으로 성형하였다. 주문양은 印花技法으로 시문하였는데, 윗면 중앙에 큰 원을 돌리고 그 주변에 4개의 작은 원을 등간격으로 돌리고 있다. 원 안에는 국화문을 시문하였으며, 원 사이에는 雲鶴文을 시문하였다. 윗면 가장자리는 흑백상감의 蓮瓣文을 돌렸으며 반듯하게 내려 간 입술부에는 雷文帶와 連珠文帶를 돌렸다. 굽바닥 7곳에 검은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을 받치고 몸체부 맞닿는 부분과 겹쳐 구웠다. 釉는 황색기가 있어 탁하며 병렬이 있다. 굽바닥은 시유 후 닦아내었다. 몸체부 드림새와 맞닿는 구연부는 유를 닦아내었으나 일부 묻쳐 있는 곳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으며, 내지면 1곳에 커다란 흑반점이 있다.

몸체는 위 아래가 구분되는 단이 있는데 외저부 단 부분은 성형시 깊게 깎아 내어 굴곡선대가 있다. 입술에는 드림새를 두어 뚜껑과 맞도록 하였다. 문양은 구연부는 뇌문대와 점문대를 돌렸으며 저부에는 연판문대를 돌렸다. 굽 바닷 1곳과 굽 안바닷 2곳에 커다란 규석을 받쳐 燔造하였다. 뚜껑과 함께 번조하여 드림새 7곳에 검은 모래 섞인 내화토 빚음 흔이 있다. 유는 부분적으로 황색기가 있어 탁하며 병렬이 있다. 全面 施釉하였으며 드림새는 시유 후 닦아내었다. 일부 유가 묻쳐 있는 곳이 있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정선되었으나 부분적으로 기포가 있고 모래 알갱이가 드러나 있다.

자정국사는 松廣寺 제7세 국사로 정확한 行狀은 알 수 없다. 그러나 「松廣寺副院事蹟碑」와 『海東佛祖源流』 등의 기록을 통해 法名이 一印이며, 충렬왕 19년(1293)~동왕 27년 2월 10일(1301)까지 修禪社主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선사주의 임기 만료는 入寂 무렵이거나 임적까지이며 寺勢가 왕성하여 부도는 바로 건립되고 있다. 따라서 사리합도 이 시기 것으로 추정된다. 匣燔品으로 유색은 몸체부 내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탁한 색을 띠고 있어 고려 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문양도 印花技法을 이용하여 선면에 시문하고 있어 이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도식화된 문양의 표본이 되고 있다. 크기는 총 높이 7.7cm이며, 뚜껑은 높이 3.1, 외측 입지름 15~15.2, 내측 입지름 13.9~14.0, 구연 두께 0.5, 저부 두께 0.9cm이다. 몸체부는 높이 5.3, 입지름 13.4, 외측 최대지름 14.8~15.0, 내측 최대지름 13.1~13.2, 굽지름 8.3, 굽너비 0.4~0.6, 내측 굽높이 0.3, 외측 굽높이 0.3, 저부 두께 1.2cm이다.

41) 『高麗史』 36, 世家 36, 忠惠王 2年(1332) 2月條, 丁未…盜發高陵.

6) 江華 斗雲里 許有全墓<sup>42)</sup>(1324년: 그림 14-2)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에 있으며 1323~1324년 축조되었다. 대부분 도굴되어 청자는 花形 標匙 1점이 출토되었다. 성형은 압출 양각이며 구연 외면에 음각선대를 시문하였다. 속굽으로 작은 모래를 받쳐 燔造하였다. 이 花形 標匙는 和順 雲住寺 출토 「丁亥」銘花形標匙<sup>43)</sup>와 기형·문양·굽 등이 매우 유사하여 珍島 龍藏城 등에서 출토되는 13세기대의 평저형 標匙가 14세기 들어 속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7) 開豐 煙陵里 忠穆王 明陵<sup>44)</sup>(1349년)

開城市 開豐郡 煙陵里에 있는 忠穆王의 묘로 1348년에 죽어 1349년 장사 지냈다.<sup>45)</sup> 도굴로 인해 靑瓷象嵌雲鶴文大標片과 連珠文標匙, 菊花文標匙 등 소량 출토되었다. 문양은 전면에 시문하거나 印花技法으로 간략하게 시문한 극히 퇴화된 양식이다. 유색 또한 탁한 청녹색과 황갈색을 띠고 있어 말기 상감청자로의 이행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8) 坡州 瑞谷里 權準墓<sup>46)</sup>(1352년: 그림 6-7·8-6·15-7)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 있으며 1352년 축조되었다. 청자의 기형은 14세기대의 일반적 그릇처럼 기벽이 두터운 편이나 둔중한 느낌은 없다. 문양은 1호묘 護牆 출토 靑瓷象嵌菊花文大標의 경우 매우 간략화된 반복 문양이 들성들성 거칠게 시문되었다. 태토는 대부분 매우 거칠며, 유색도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다. 굽은 竹筍形이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이들 청자는 문양과 태토, 번법 등이 무안 도리포 출토품과 유사점이 많아 14세기 중반 특히, 「丁亥」銘靑瓷 이후의 쇠퇴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9)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舍利塔 出土 靑磁象嵌線文大標<sup>47)</sup>(1388년: 그림 5-11)

원주시 태장동 令傳寺址 三層石塔을 경복궁으로 옮기면서 출토되었다. 「洪武 二十一年 戊辰 四月」銘 塔誌石과 함께 출토되어 1388년의 하한 시기를 알 수 있다. 내저곡면식 대접으로 측면은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문양은 내측면 하단에 3줄 白象嵌線帶만 시문하였다. 釉는 회

42) 손보기 외, 『가락 허시중궁 무덤 발굴조사보고』(한국선사문화연구소, 1988).

43) 全南大學校博物館, 『雲住寺』Ⅲ(1990), pp. 18~22, pp. 47~49.

44)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12, 고려편 3(1992), p. 21, p. 23.

45) 『高麗史』 37, 世家 37, 忠穆王 4年(1348)條.

(十二月)丁卯 王薨于金永屯第…忠定王元年三月丁酉 葬明陵….

46) 문화재연구소, 『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發掘調査 報告書』(1993).

47) ① 具一會, 「高麗時代 靑磁象嵌대접의 編年研究」(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圖76.

② 李鍾旼, 「14世紀高麗象嵌靑磁의 研究」(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p. 31.

청색조이며 외면은 부분적으로 유가 흘러 내렸다. 굽 내측면이 경사를 이루고 있다. 굽 바닥은 굽은 모래를 받쳤으며 內底面 4곳에 태토 빚음을 받쳐 常燻하였다. 투박한 기형과 간략한 문양, 탁한 유색에서 후기 청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3) 海底 遺蹟

해저 유적에서는 많은 도자들이 출토되고 있어 器種 또는 器形 구성과 文樣, 燻法, 釉色 등의 검토를 통해 시대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생산지와 수요처를 추정할 수 있어 생산 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려 후기 해저 유적은 新安海底와 保寧海底, 務安道里浦海底 遺蹟 등이 있다. 新安遺蹟은 1323년에 침몰한 중국 무역선으로 고려 청자가 일부 출토되었으나 기형과 유색, 문양, 반침의 비교를 통해 傳世品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이곳 출토 中國 陶瓷은 고려 청자에 미친 元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sup>48)</sup> 保寧遺蹟은 「己巳」銘靑瓷가 다량 출토된 중요한 유적이지만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公伴 유물을 알 수 없다.<sup>49)</sup> 이들 출토품은 생산지인 강진 사당리 포구를 출발하여 개경으로 향해 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務安道里浦遺蹟 출토 청자는 생활 容器인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이며 일부 鉢과 盞托이 있다. 기형은 「己巳」銘靑瓷 이후 지속되는 둔중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문양은 구름과 봉황, 국화, 모란, 연꽃, 버들 등이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나 대부분 말기 청자의 특징인 간략화된 印花技法의 반복 문양이 듬성듬성 거칠게 시분되었다. 燻法은 모래 받침의 例燻과 태토 받침의 常燻으로 구별된다. 釉는 어두운 색조를 띠는 다갈색조와 일부 酸化가 이루어진 황갈색조가 있으며, 제대로 용융되지 않은 불량품도 많다. 굽 바닥의 유는 施釉 후 모두 부분적으로 닦아내었다.<sup>50)</sup> 이들 출토품은 기형과 유색, 문양, 반침 등을 통해 「正陵」(1365~1374년)銘靑瓷 이후 즉 14세기 말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리포 출토품은 청자의 쇠퇴 과정과 분청자로의 이행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또한 제작 수법으로 보아 강진 사당리 10호 가마를 중심으로 제작하여<sup>51)</sup>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48) 文化財管理局, 『新安海底遺物』 I·II·III·綜合(1983·1984·1985·1988).

49)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 219.

5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1995).

보고서 未刊으로 도면에 의한 기형 변화를 알 수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1)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1992), pp. 288~291.

## 2. 銘文靑瓷

고려 후기에는 干支銘과 官司銘 등 그릇에 명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점차 쇠퇴하는 청자의 질적 저하와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왜구의 잦은 침입과 중앙 통제의 해이 등으로 인해 청자의 질은 더욱 쇠퇴하게 되는데, 이는 왕실 용인 「正陵」銘 靑瓷의 질적 하락에서도 엿볼 수 있다.

### (1) 干支銘 靑瓷

간지명 청자는 그릇 내지면 중앙에 상감기법으로 干支를 새긴 것으로 현재까지 「己巳」와 「庚午」 「壬申」 「癸酉」 「甲戌」 「壬午」 「丁亥」 「乙未」 등의 8간지가 확인되고 있다.<sup>52)</sup> 간지명 청자의 제작은 대몽항쟁 후 도자의 질적 쇠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도자 생산을 위한 공부수취체제와 관련되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干支銘 청자의 제작 시기는 日政期부터 최근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작 시기는 13세기(1269~1295년)<sup>53)</sup>로 보는 견해와 14세기(1329~1355년)로 보는 견해<sup>54)</sup>,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으로 보는 견해<sup>55)</sup> 등 매우 다양하며 접근 방식도 각각 相異하다.<sup>56)</sup>

간지명 청자의 생산지는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17번지 일대 가마터로 조사되고 있다. 이외에 개성 일대의 고분·滿月臺·伴鷗亭과<sup>57)</sup> 和順 雲住寺,<sup>58)</sup> 高興 帝釋寺(사진 6), 江華 禪源寺(사진 7),<sup>59)</sup> 保寧 海底 遺蹟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간지명 청자는 생활 용기인 대접과

52) 강진청자자료박물관 이용희 연구실장에 의하면 이외에도 辛巳銘과 甲申銘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실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53) ① 李熙寬, 「高麗後期 己巳銘 象嵌靑磁의 製作年代問題에 대한 새로운 접근」, 『美術史學研究』 217·218합집(韓國美術史學會, 1998).

② 崔健, 「干支銘象嵌靑磁의 製作時期와 製作窯」,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銘文·符號 특별전-』(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54) 尹龍二, 「干支銘 象嵌靑磁의 製作時期에 關하여」,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55) 鄭良謨, 주 2) ⑦ 전게서.

56) 이에 대한 정리는 다음 글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① 李熙寬, 주 53) ① 전게서, pp. 5~12.

② 崔健, 주 53) ② 전게서, pp. 81~82.

③ 韓盛旭,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研究史」,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海剛陶磁美術館, 1991), pp. 96~98.

57) ①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磁銘文』(1992), p.106, p. 110.

② 韓大善, 「干支銘을 가진 高麗靑磁」, 『歷史學報』 17·18(歷史學會, 1962), p. 440.

58) 全南大學校博物館, 『雲住寺』, III(1990), pp. 18~22, pp. 47~49.

59) 韓盛旭, 「高麗 後期 靑瓷의 性格」(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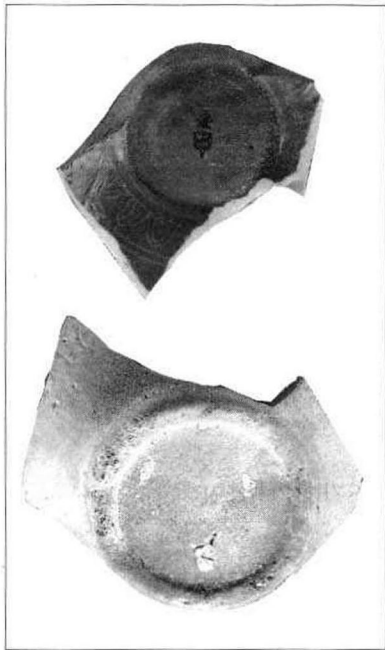


사진 6. 高興 帝釋寺 「壬申」 銘大椀



사진 7. 江華 禪源寺 「壬申」 「正陵」 銘靑瓷

접시를 중심으로 蓋과 高足杯, 四耳壺 등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內底曲面式 標匙와 高足杯는 이 시기에 등장하는 기형으로 추정된다. 官司銘에 많이 보이는 瓶類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干支銘 청자의 특징이다. 기형은 대부분 매우 두터워져 대형화되면서 둔중해 진다. 굽은 대체로 넓은데, 「甲戌」 銘까지는 대부분 U자 형이나 그 이후 「壬午」 銘부터는 ㄱ자형이 많아지고 있다. 器形의 대형화 둔중화 경향은 「壬午」 銘 이후 더욱 쇠퇴하여 분청자로 이행된다. 문양은 대부분 印花技法으로 반복 시문하고 있는데, 「壬午」 銘 이후가 되면 더욱 단순 간략한 문양을 전면 시문하고 있다. 釉藥은 「丁亥」 銘을 제외하고 대체로 회청색 또는 회녹색조를 띠며 미세한 기포가 전면 있다. 굽 바닥 釉는 側面斜線形 標匙와 속굽 標匙, 八角 標匙 등 소형 접시를 제외하고는 「己巳」 銘부터 「甲戌」 銘까지는 全面 施釉하고 있으나 「壬午」 銘부터 「乙未」 銘까지는 굽 바닥 釉를 닦아내고 있다. 소형 접시들은 「壬申」 銘부터 일부 釉를 닦아내고 있어 큰 기형과는 대조를 이룬다. 굽 받침은 「甲戌」 銘까지는 일부 규석 가루가 있으나 대부분 규석 받침을 받쳤으며, 「壬午」 銘부터는 규석 가루가 일부 있으나 대부분 모래 받침을 하고 있다. 즉, 「甲戌」 銘과 「壬午」 銘의 8년 사이에 청자의 질이 더욱 쇠퇴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기이므로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된다.

이들 간지명 청자는 13세기대 유적 출토품과 비교하였을 때 기형과 문양, 번법, 태토, 유약 등 모든 것에서 질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14세기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강진 사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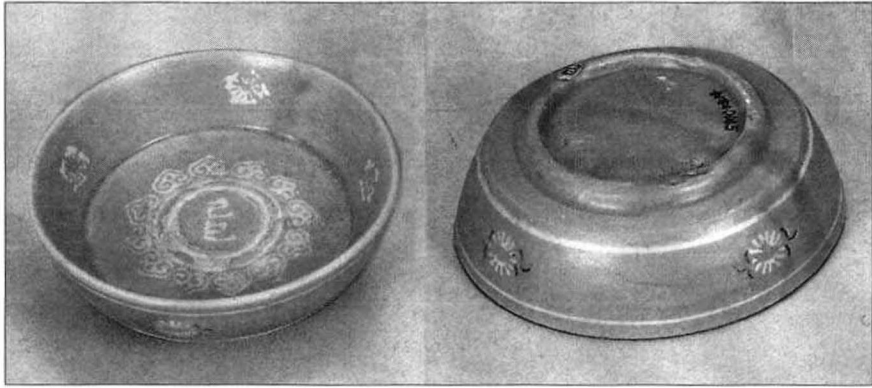


사진 8.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13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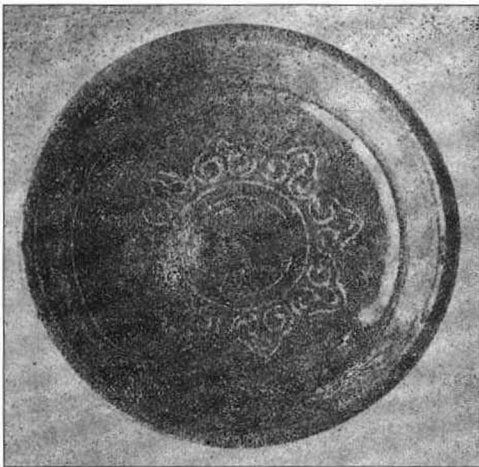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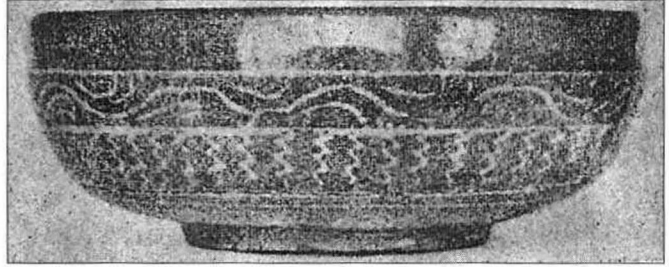


사진 9~11. 靑瓷象嵌「己巳」銘標匙(1389년; 野守健과 Bernard Rackhan에서 전제)

23호 가마터에서 「丁亥」銘과 「至正」銘(1341~1367년)靑瓷가 함께 출토되었으며<sup>60)</sup> 江華 禪源寺에서는 「壬午」銘과 「正陵」銘(1365~1374년)이 함께 출토되어(사진 7)<sup>61)</sup> 이들이 유사한 시기에 제작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작 수법도 「至正」·「正陵」銘과 「壬午」銘 이후의 간지명 청자가 서로 유사하여 14세기 제작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元宗 11년(1270) 8월~14년(1273) 2월까지의 삼별초가 康津과 인접한 珍島와 莞島, 濟州를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어 중앙 통제가 필수적인 干支銘 靑瓷의 제작은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sup>62)</sup> 그리고 橫書 「己巳」銘靑瓷(사진 9~11)의 경우 14세기 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sup>63)</sup> 간지명이 13세기에 등장하였다면 이들과의 관계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 (2) 官司銘 靑瓷

官司銘 청자는 干支銘 이후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특징적으로 사용되었다. 관사명은 간지명에 의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질이 계속 저하되자 각 관사에서 사용할 자기를 직접 감독 생산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간지명과 관사명은 같은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전통은 분청자 관사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 1) 「東寧府」銘 靑瓷象嵌瓶<sup>64)</sup>(1270~1290년)

東寧府는 元이 元宗 11년(1270) 2월~忠烈王 16년(1290) 3월까지 慈悲嶺 이북을 관할하기 위해 西京(平壤)에 설치한 官廳이다.<sup>65)</sup> 이 병은 13세기 생활 유적 출토품과 함께 이 시기 도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sup>66)</sup>

### 2) 「乙酉司艦署」銘 靑瓷象嵌柳蘆文瓶<sup>67)</sup>(1345년; 그림 17-5)

어깨가 처지고 하단부가 약간 짧아 전성기 이후의 기형임을 알 수 있다. 문양은 어깨부에

60)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 223.

61) 江華 禪源寺址의 거의 같은 지점에서 지표 수습되었으며 신원사유물전시관 소장품이다.

62) ① William E. Henthorn, 「高麗朝 軍隊에 관한 몇가지 노트」, 『王立亞細亞學會 韓國支部會報』 35(1959), pp. 67~75.

② 韓大善, 「干支銘을 가진 高麗靑磁」, 『歷史學報』 17·18(歷史學會, 1962), p. 449.

63) ① 野守健, 『高麗靑磁の研究』(清閑舍, 1944), pp. 128~130.

② Bernard Rackham, 『Catalogue of the Le Blond Collection of Korean Pottery』(Victoria And Albert Museum, 1918), p. 24.

64) 鄭良謨, 「高麗陶磁銘文의 性格」, 『高麗陶磁銘文』(國立中央博物館, 1992), p. 146.

65) 方東仁, 「東寧府置廢小考」, 『關東史學』 2(關東大學史學會, 1984), pp. 71~83.

66) 13세기 중반의 절대 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자세한 소개가 없다.

67)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磁銘文』(1992), p. 43.

蓮瓣文帶를 두르고 몸체에 주문양인 柳蘆文를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銘文은 버드나무 사이에 세로로 흑상감하였다. 釉는 짙은 암록색이며 전면에 가는 빙렬이 있다. 속굽으로 굽은 시유하지 않았으며 저부는 酸化되었다. 단순한 문양과 거친 태토, 짙은 유색 등이 「丁亥」銘 청자와 유사하여 이 시기 특징을 잘 보여 준다. 司醞署는 文宗 때 설치된 官司로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는데 司醞署 명칭은 忠烈王 34년(1308)~恭愍王 4년(1355)과 恭愍王 11년(1362)~同王 17년(1368), 恭愍王 21년(1372) 이후<sup>68)</sup> 朝鮮 太祖 중기까지 사용하였다. 따라서 乙酉年은 忠穆王 1년인 1345년임을 알 수 있다.

### 3) 「德泉」銘 靑瓷象嵌蓮花柳文梅瓶<sup>69)</sup>(1345~1403년)

外反 구연과 球形 몸체, 잘록한 허리 등이 불안정한 느낌을 준다. 釉는 갈색 또는 녹색을 띠고 있다. 문양은 어깨부에 蓮瓣文이 있으며 몸체부에 주문양인 蓮花折枝와 버드나무가 간략하게 시문되었다. 호림박물관 소장품은 주문양에 물결문이 있으며 어깨부에는 변형 如意頭文帶를 밑부분에는 크고 약화된 연판문대를 추가하였다. 평저로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銘文은 문양 사이에 筆刻하였다. 德泉은 忠宣王代(1308~1313년) 德泉倉으로 설치된 후 忠肅王 12년(1325) 德泉庫로 바뀌며<sup>70)</sup> 太宗 3년(1403) 內贍寺로 개칭된다.<sup>71)</sup> 따라서 「德泉」銘梅瓶은 1308년~1403년에 제작된 것으로 「乙酉司醞署」銘梅瓶에 비해 몸체가 팽창되고 허리가 더욱 가늘어지며 文樣도 훨씬 퇴화되고 있어 1345년 이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義成庫」銘梅瓶과 함께 분청자로 이행되는 기형이다.

### 4) 「良醞」銘 靑瓷象嵌扁瓶<sup>72)</sup>(1356~1371년; 그림 17-1·2)

扁瓶만 2점 확인되는데, 구연이 외반되고 목이 짧으며 몸체의 양면은 편평하다. 문양은 어깨부에 蓮瓣文과 如意頭文을 시문하였고, 주문양은 菱花形內에 柳文과 蓮花折枝를 몸체부에 간략한 線으로 표현하였다. 銘文은 어깨부와 동체부에 筆刻하였다. 釉는 녹색을 띠고 있으며 밑부분은 유약이 잘 녹지 않았다. 평저로 시유하지 않았으며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그리고 大田市 鷄足山城(雨述城)에서 「良醞納」銘片이 출토되었는데 명문 부분만 확인되어 기형

68) 『高麗史』 31, 志, 百官 2, 司醞署條.

69) ① 國立全州博物館, 『高麗木 朝鮮初의 美術』(1996), p. 21.

② 湖林博物館, 『湖林博物館 名品選集』 I(1999), p. 88, p. 255.

70) 『高麗史』 31, 志, 百官 2, 德泉庫條. 德泉庫 忠宣王時有德泉倉史… 忠肅王十二年改爲德泉庫….

71) 『朝鮮王朝實錄』 卷 5, 太宗恭定大王 3年 6月 乙亥條.

罷德泉庫爲內贍寺 義成庫爲內資寺 司水監合司宰監….

72) ①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瓷銘文』(1992), p. 41.

② 부산시립박물관, 『부산시민소장 도자기 특별전』(1992), p. 17.

은 알 수 없다.<sup>73)</sup> 명문은 筆刻하였으며 문양은 2줄의 白象嵌線帶가 일부 보일 뿐이다. 良醞署는 문종 때 설치되어 肅宗 3년(1098)~忠烈王 33년(1307)과 恭愍王 5년(1356)~同王 10년(1361), 恭愍王 18년(1369)~同王 20년(1371)에 운영되었다.<sup>74)</sup> 따라서 「良醞」銘 청자는 퇴화된 器形과 매우 간략한 문양, 암갈색조의 釉色을 등을 통해 1356~1371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義成庫」銘 靑瓷象嵌蓮瓣文梅瓶<sup>75)</sup>(1387~1403년)

外反 구연과 球形 몸체, 잘록한 허리 등 「德泉」銘 梅瓶과 매우 유사한 기형이다. 문양은 어깨부에 蓮瓣文帶와 雷文帶만 간략하게 시문하였다. 釉는 탁한 회갈색을 띠며 시유되지 않는 곳이 있어 불량하다. 銘文은 몸체 중앙에 세로로 筆刻하였다. 義成庫는 조선초 內資寺의 전신으로<sup>76)</sup> 충렬왕 22년(1296) 義成庫洞의 지명으로 처음 등장하여<sup>77)</sup>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는데, 우왕 13년(1387)<sup>78)</sup>과 昌王 원년(1388)<sup>79)</sup>의 기록이 있다. 따라서 「義成庫」銘 梅瓶은 퇴화된 기형과 탁한 유색, 매우 단순 약화된 문양 등에서 1387년 이후의 기형임을 알 수 있다. 「德泉」銘 梅瓶과 함께 분청자로 이행되는 기형이다.

6) 「公須」銘 靑瓷象嵌柳蘆水禽文樸匙(그림 16-6, 사진 12)

「公須」銘 靑瓷는 公須田<sup>80)</sup>을 관할하는 지방 관아용으로 추정되는데, 慶州邑城에서 「公須」銘 粉靑瓷와 「慶州公須」銘 粉靑瓷가 출토되어(사진 13)<sup>81)</sup> 干支銘부터 시작되는 銘文 전통이 조선 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내저면이 편평하고 측면선은 둥글게 내만하였다. 태토는 회청색으로 모래 등 잡물이 약간 섞여 있다. 회녹색이 도는 반투명 유약을 전면에 얇게 시유하였으며, 잔빙렬이 많고 광택이 적다. 내저면은 銘文과 二重圓圈, 如意頭文帶, 菊花折枝, 二重圓圈을 차례로 시문하였다. 내측면은 象嵌線帶와 등간격의 柳蘆水禽文을 시문하였다. 외면은 구연부와 저부에 3조, 2조의 백상감선대를 시문하였다. 굽 바닥은 부분적으로 태토가 드러나 있으며, 백색 모래를 받치 例燻하였다.

73) 충남대학교박물관, 『鷄尼山城 發掘調査 略報告』(1998), p. 8.

74) 『高麗史』 31, 志, 百官 2, 司醞署條.

75) 國立全州博物館, 『高麗末 朝鮮初의 美術』(1996), p. 21.

76) 『朝鮮王朝實錄』 권5, 太宗恭定大王 3年(1403) 6月 乙亥條.

    罷德泉庫爲內贍寺 義成庫爲內資寺 司水監合司宰監 ….

77) 『高麗史』 54, 志 8, 五行 2, 金, 忠烈王 22年(1296) 4月條.

78) 『高麗史』 136, 列傳 49, 辛禡 4, 13年(1387) 8月條.

79) 『高麗史』 137, 列傳 50, 辛禡 5, 辛昌, 洪武 21年(1388) 8月條.

80) 公須田은 지방 관청의 제정을 위해 지급된 公須柴地와 公須田을 말한다.

8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慶州市 西部洞 19番地 遺蹟 指導委員會議資料」(1997).



사진 12. 「公須」銘標匙(海剛陶磁美術館 所藏)



사진 13. 慶州邑城 「公須」 「慶州公須」銘粉青瓷

### (3) 其他 銘文 青瓷

#### 1) 「至正」銘 象嵌青瓷(1341~1356년: 그림 7-11)

至正은 元 順帝의 연호로 恭愍王 5년(1356)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sup>82)</sup> 1341년부터 1356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형은 저부만 남아있으나 측면선이 직사선이며 내저면이 편평하여 側面斜線形標匙로 추정된다. 문양은 내저면에 如意頭文帶와 二重圓圈文을 시문하고 중앙에 銘文을 筆刻하였다. 釉는 담갈색조를 띠며, 가는 빙렬이 있다. 굽 바닥과 굽 안바닥 釉를 부분적으로 닦아낸 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내저면 如意頭文帶와 燻法, 굽 바닥 施釉 상태 등은 「壬午」銘 이후 14세기 중후반 소형 접시에 나타나는 대표적 제작 수법이다. 강진 사당리 23號 가마터 조사에서 「丁亥」銘과 함께 출토되어<sup>83)</sup> 「丁亥」銘의 제작 시기가 1347년임을 알 수 있었다.

#### 2) 「至正十一年」銘 青瓷象嵌柳蘆水禽文大標<sup>84)</sup>(1351년: 그림 5-9, 사진 14)

내저곡면식 대접으로 구연부는 완만하게 내만하고 있다. 문양은 내면 구연부에 상감선대가 있으며 내측면에는 주문양인 柳蘆水禽文이 간략하게 도식적으로 시문되었다. 내저면은 여의두문대와 상감선대를 시문하였다. 외면은 상감선대와 筆刻의 「至正十一年六月十二日生器○造○野京鉢貼并○一百二十五」銘이 있다. 釉는 조잡한 暗褐色調로 內外底面은 후대의 酸化에 의해 缺落되었다. 굽은 바닥이 좁은 竹節形이며 굽 안바닥에 손누름 흔이 남아 있다. 내저 2곳과 굽바닥에 검은 태토 받침을 받쳐 常燻하였다.

82) 『高麗史』 39, 世家 39, 恭愍王 2, 恭愍王 5年(1356) 6月條, 乙亥停至正年號.

83)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 223.

84) 伊藤郁太郎, 「高麗青磁をめぐる諸問題」,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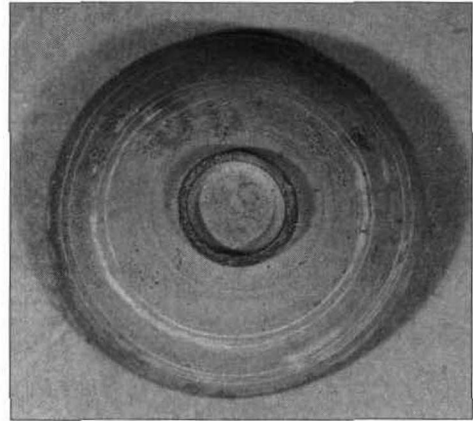


사진 14. 「至正十一年」銘 靑瓷象嵌柳蘆水禽文大椀(日本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所藏)

3) 「正陵」銘 象嵌靑瓷(1365~1374년: 그림 4-12·7-12, 13-5, 사진 47·48·74)

正陵은 1365년 축조한 恭愍王妃 魯國徽翼大長公主의 묘로<sup>85)</sup> 「正陵」銘靑瓷은 1365년부터 恭愍王이 돌아가신 1374년 사이에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지인 康津 沙堂里<sup>86)</sup> 이외에 경기도 開豐郡 正陵洞 玄陵·正陵의 丁字閣址 앞 논과<sup>87)</sup> 일본 大宰府 觀世音寺 小子房地區(그림 12-12),<sup>88)</sup> 江華 禪源寺(사진 48) 출토품 등이 있다.<sup>89)</sup>

「正陵」銘 청자의 태토는 잡물과 기포가 많아 거칠며, 釉色은 모두 어두운 색조를 띠며 釉 표면에 빙결이 있다. 접시의 문양은 內底面에 如意頭文帶와 二重圓圈, 銘文을 시문하였다. 대 접은 모두 內底圓刻式으로 굽은 竹節形이다. 대부분 굽 바닥 유를 닦아 낸 후 모래 받침을 하였으나 일부는 태토 빚음을 하였다. 특히 태토 받침 접시는 받침과 성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正陵」銘 내의 시기차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부는 燔造時의 과열을 막기 위해 굽 안바닥을 다졌다. 이들은 태토와 유색의 질이 떨어지고 문양 구성이 단순 간략하며 銘文의 筆劃도 王室用임에도 불구하고 干支銘에 비해 단정하지 못해 청자의 쇠퇴 과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특히 「正陵」銘 시기는 왜구 창궐기로 남해안에 위치한 강진에서의 청자 생산은 질적 하락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이다.

85) 『高麗史』 41, 世家 41, 恭愍王 4, 14年(1365)條.

(二月)甲辰…是日公主薨…(夏四月)壬辰 葬公主于正陵.

86)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瓷銘文』(1992), p. 35.

87) ①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瓷銘文』(1992), p. 34.

②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清閑舍, 1944), pp. 96~97.

88) 森田勉, 「北部九州出土の高麗陶磁器-編年試案-」, 『貿易陶磁研究』 5(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85), pp. 19~27.

89) ① 鮮文大學校博物館, 『名品圖錄』 I, 陶瓷器篇(2000), p. 77.

② 韓盛旭, 「高麗 後期 靑瓷의 性格」(木浦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1), pp. 45~47.

#### 4) 기타

1081년과 1261년설 등이 있는 辛酉六月日銘 靑瓷鐵畫草花文注子가 있으나 關東大地震 때 燒失되었다.<sup>90)</sup> 1126년과 1306년으로 추정되는 丙午一月 奉饌大廟 鎮○○○ ○○○○銘 黑釉草花文飾臺가 있으며<sup>91)</sup> 1110년과 1350년설이 있는 庚寅八月日 仲壬○○造銘 靑瓷鐵畫唐草文梅瓶<sup>92)</sup> 등이 있으나 특수 기종이고 편년에 차이가 많아 제외하였다.

### IV. 高麗 後期 靑瓷의 器形 變遷<sup>93)</sup>

#### (1) 平底鉢(표 1, 그림 3)

굽을 만들지 않고 바닥면이 편평한 기형으로 13세기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기벽이 얇고 저부는 완만한 곡선으로 성형하였다. 구연은 내만하며 크기도 거의 유사하다. 이들은 13세기의 특징인 단정함과 완만한 곡선, 얇은 기벽, 밝은 녹색색조의 유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높이 5.5~7cm, 口徑 16.5~18.5cm, 底徑 6.5~8cm이다. 14세기 들어 大鉢이 大型化되면서 大鉢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平底鉢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3-1	靑瓷鉢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5.	1271
3-2	靑瓷鉢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3.	1279
.	靑瓷鉢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3.	1279
3-3	靑瓷鉢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3.	1279

90) ①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瓷銘文』(1992), p. 140·157.

②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사회과학출판사, 1995), pp. 154~155.

91)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瓷銘文』(1992), p. 140, p. 157.

92) ① 國立中央博物館, 『高麗陶瓷銘文』(1992), p. 140·157.

② 김영진,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사회과학출판사, 1995), p. 155.

93) 기형 분석에 인용된 그림은 시기별로 대표적인 것을 게재하였다. 크기는 현황에 소개된 모든 청자의 그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용 그림은 일부 수정 가필하였으며 出典은 參考文獻의 약칭을 사용하였다. 出典이 없는 것은 강신 사당리 117번지 일대 수습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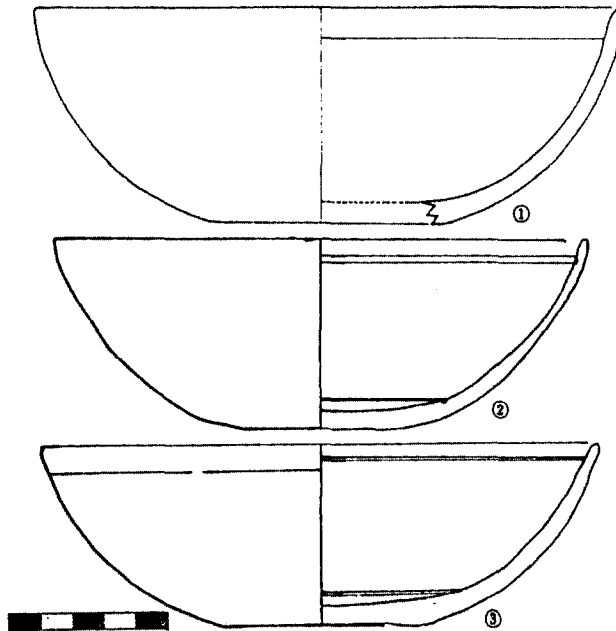


그림 3. 平底鉢

(2) 內底圓刻式大椀(표 2, 그림 4)

內底面 중양을 원형으로 깎아 난을 주고 있는 기형이다. 13세기대에는 구연 형태가 內彎形과 外反形이 공존하고 있는데 특히, 口徑과 器形이 작은 器形大椀(그림 4-2·4)은 대부분 외반하고 있다. 또한 13세기는 기형과 내저원각이 아주 작고 상감분양도 간략 단정하게 시분하고 있으며 순칭자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14세기대는 기형이 커지고 기벽도 매우 두터워지며, 구연부는 대부분 각을 주어 內彎形으로 성형하고 있다. 특히 내저원각은 간지명 제작시기에 매우 넓어지고 있어 주목된다.<sup>94)</sup> 器形이 상대적으로 작은 器形 대접은 濟州 法華寺 출토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 14세기가 되면 그릇이 대형화되면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에 있어서도 明宗 智陵 출토품을 제외하면 높이는 13세기대 6~8cm, 14세기대 8~9cm이다. 口徑은 13세기는 14~18cm, 14세기는 「己巳」銘은 18~19cm이나 「壬申」銘 이후는 20cm대를 유지하고 있다. 底徑은 13세기 4~6cm, 14세기 5.5~7cm이다. 굽 너비는 13세기 0.3~0.5cm, 14세기 0.5~1cm이다. 따라서 14세기가 되면 기형이 대형화되면서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4) 李鍾玟, 「14世紀 高麗象嵌靑磁의 研究」(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2), p. 19.

표 2. 內底圓刻式大槩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4-1	靑瓷象嵌荔枝文大槩	明宗 智陵, 해 강, 1991, p. 67.	1255
·	靑瓷陽印刻菊唐草文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1.	1271
·	靑瓷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	靑瓷陽印刻雲鶴文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	靑瓷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	靑瓷陽印刻雲鶴文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4-2	靑瓷陽印刻雲鶴文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	靑瓷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4-3	靑瓷陽刻唐草文大槩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0.	1271
4-4	靑瓷象嵌雲鶴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41.	1279
·	靑瓷陽印刻菊唐草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5.	1279
·	靑瓷陽印刻雲鶴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5.	1279
·	靑瓷陰刻鸚鵡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4.	1279
4-5	靑瓷陰刻鸚鵡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4.	1279
·	靑瓷陰刻鸚鵡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4.	1279
·	靑瓷陽刻蓮瓣文大槩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42.	1279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槩	구일회, 1991, 도판29.	1329
4-6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槩	해 강, 1991, p. 69.	1329
·	靑瓷象嵌蓮花唐草文「己巳」銘大槩	해 강, 1991, p. 70	1329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槩	중앙박, 1992, p. 80.	1329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槩	해 강, 1991, p. 69.	1329
·	靑瓷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大槩	해 강, 1991, p. 68.	1329
·	靑瓷象嵌「庚午」銘大槩	강진 사당리 출토	1330
4-7	靑瓷象嵌雲鶴文「庚午」銘大槩	중앙박, 1992, p. 90.	1330
·	靑瓷象嵌「壬申」銘大槩	高興 帝釋寺 出土	1332
·	靑瓷象嵌花卉鳥蟲文「壬申」銘大槩	해 강, 1991, p. 70	1332
4-8	靑瓷象嵌柳蘆水禽文「壬申」銘大槩	東京國立博物館	1332
4-9	靑瓷象嵌「癸酉」銘大槩	강진 사당리 출토	1333
·	靑瓷象嵌雲鶴文「癸酉」銘大槩	開城 滿月臺 出土, 중앙박, 1992, p. 106.	1333
·	靑瓷象嵌「丁亥」銘大槩	해 강, 1991, p. 87.	1347
·	靑瓷象嵌「丁亥」銘大槩	중앙박, 1992, p. 109.	1347
4-10	靑瓷象嵌「丁亥」銘大槩	강진 사당리 출토	1347
4-11	靑瓷象嵌「乙未」銘大槩	강진 사당리 출토	1355
4-12	靑瓷象嵌蓮花唐草文「正陵」銘大槩	해 강, 1991, p. 71.	1365~1374
·	靑瓷象嵌「正陵」銘大槩	江華 禪源寺 出土	1365~1374
·	靑瓷象嵌「正陵」銘大槩	강진 사당리 출토	1365~1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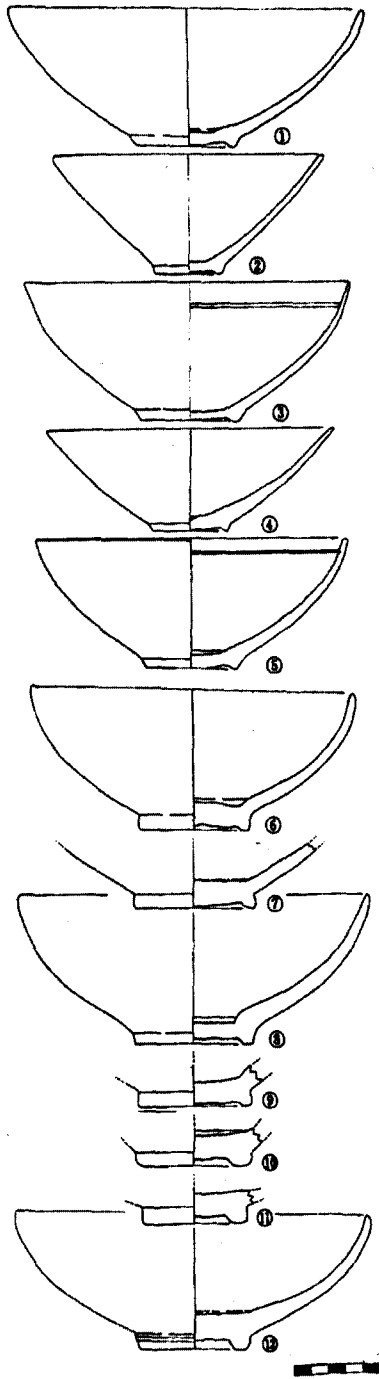


그림 4. 內底圓刻式大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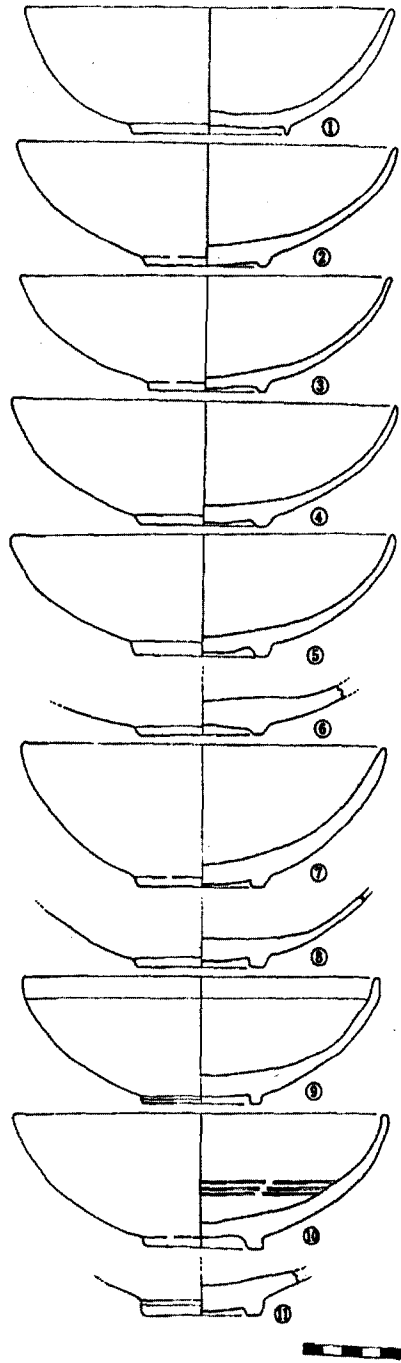


그림 5. 內底曲面式大椀

(3) 內底曲面式大椀(표 3, 그림 5)

內底面을 曲面으로 성형한 대접으로 구연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며 내만하고 있다. 높이는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후기로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청자의 질적 하락이 가속화되는 「壬午」銘을 기준으로 이전은 6~6.8cm 이후는 7cm 내외로 변화되고 있다. 口徑은 18.5~20.5cm로 시기별 변화가 없으며, 底徑은 6~8cm로 6~6.5cm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다. 굽 너비는 미세한 차이지만 「壬午」銘을 기준으로 이전은 0.2~0.5cm 이후는 0.5~1cm로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13세기대 자료가 빈약하여 14세기대와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지만 「壬午」銘 이후 기형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內底曲面式大椀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5-1	靑瓷大椀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2.	1271
·	靑瓷大椀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2.	1271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椀	중앙박, 1992, p. 79.	1329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椀	중앙박, 1992, p. 78.	1329
5-2	靑瓷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大椀	해 강, 1991, p. 73.	1329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銘大椀	해 강, 1991, p. 73.	1329
5-3	靑瓷象嵌柳蘆水禽文「庚午」銘大椀	해 강, 1991, p. 74.	1330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庚午」銘大椀	중앙박, 1992, p. 90.	1330
5-4	靑瓷象嵌柳蘆水禽文「壬申」銘大椀	중앙박, 1992, p. 92.	1332
·	靑瓷象嵌柳蘆水禽文「壬申」銘大椀	해 강, 1991, p. 74.	1332
·	靑瓷象嵌「壬申」銘大椀	중앙박, 1992, p. 99.	1332
5-5	靑瓷象嵌荔枝文「癸酉」銘大椀	중앙박, 1992, p. 104.	1333
·	靑瓷象嵌柳蘆水禽文「癸酉」銘大椀	해 강, 1991, p. 75.	1333
·	靑瓷象嵌柳蘆水禽文「癸酉」銘大椀	중앙박, 1992, p. 102	1333
5-6	靑瓷象嵌蓮花唐草文「甲戌」銘大椀	강진 사당리 출토	1334
·	靑瓷象嵌雲鶴文「壬午」銘大椀	江華 禪源寺 出土	1342
5-7	靑瓷象嵌柳蘆水禽文「壬午」銘大椀	東京國立博物館	1342
·	靑瓷象嵌雲鶴文「壬午」銘大椀	강진 사당리 출토	1342
·	靑瓷象嵌柳蘆水禽文「丁亥」銘大椀	강진 사당리 출토	1347
5-8	靑瓷象嵌菊花文「丁亥」銘大椀	중앙박, 1992, p. 109.	1347
·	靑瓷象嵌雲鶴文「丁亥」銘大椀	중앙박, 1992, p. 109.	1347
5-9	靑瓷象嵌柳蘆水禽文「至正十一年」銘大椀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所藏	1351
·	靑瓷象嵌柳蘆水禽文「乙未」銘大椀	중앙박, 1992, p. 108.	1355
5-10	靑瓷象嵌雲鶴文「乙未」銘大椀	강진 사당리 출토	1355
5-11	令傳寺 普濟尊者舍利塔 靑磁象嵌線文大椀	이종민, 1992, p. 31.	1388

(4) 內底曲面中大椀(표 4, 그림 6)

內底面은 저평하고 구연이 내만하는 기형으로 일반 대접에 비해 높이가 낮다. 13세기대에 비해 14세기대 干支銘의 경우 雲鶴文을 주문양으로 하는 것은 문양을 內全面에 시문하고 있다. 기형과 크기에 있어 뚜렷한 변화는 없다. 높이 5~6cm, 口徑 15.5~2cm, 底徑 5~6cm, 굽너비 0.3~0.7cm로 內底曲面式大椀에 비해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종과는 달리 후기로 갈수록 기벽이 얇아지고 있다.

표 4. 內底曲面式中大椀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6-1	靑瓷象嵌雙魚菊花文大椀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2.	1271
6-2	靑瓷象嵌雲鶴文「己巳」銘大椀	중앙박, 1992, p. 83.	1329
6-3	靑瓷象嵌雲鶴文「己巳」銘大椀	해 강, 1991, p. 76.	1329
6-4	靑瓷象嵌雲鶴文「庚午」銘大椀	중앙박, 1992, p. 91.	1330
6-5	靑瓷象嵌菊花荔枝文「壬申」銘大椀	해 강, 1991, p. 77.	1332
·	靑瓷象嵌雲鶴文「壬申」銘大椀	중앙박, 1992, p. 93.	1332
6-6	靑瓷象嵌雲鶴文「癸酉」銘大椀	중앙박, 1992, p. 103.	1333
6-7	靑瓷象嵌菊花文大椀	坡州 瑞谷里 古墳, 문화재, 1993, p. 235.	1352
6-8	靑瓷象嵌雲鶴文「乙未」銘大椀	중앙박, 1992, p. 108.	1355

(5) 側面斜線形椀匙(표 5, 그림 7)

높이가 낮고 내저면은 편평하며 측사면이 거의 직사선으로 성형되었다. 굽이 다른 기종과 기형에 비해 U자형에서 ㄱ자형으로 변하는 것이 매우 뚜렷하다. 13세기대는 기벽이 얇고 굽바닥이 좁은 U자형의 굽을 갖고 있으나 14세기대는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기벽이 두터워지고 굽바닥도 넓어진다. 특히 내저면의 두께가 매우 두터워지며 굽도 함께 변화되고 있다. 구연은 대부분 직사선으로 내만하는데, 일부 「壬申」銘(그림 7-6)과 「癸酉」銘(그림 7-8)은 구연을 살짝 외반시키고 있다. 구연 외반 접시는 타 간지명에 있는 외측면 상하의 백상감선대를 시문하지 않아 제작 수법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正陵」銘은 예외적으로 기벽이 얇아지고 있다. 높이는 13세기대는 3~3.5cm이며 14세기대는 3.5~4.5cm로 매우 커지고 있다. 구경은 「癸酉」銘을 기준으로 이전은 11~11.5cm 이후는 12cm대 이다. 底徑은 5~9cm로 폭 넓게 분포하며, 굽 너비는 「壬午」銘을 기준으로 이전은 0.3~0.6cm 이후는 0.5~0.8cm이다. 따라서 14세대에 들어와 「己巳」銘과 「壬午」銘 시기에 기형이 심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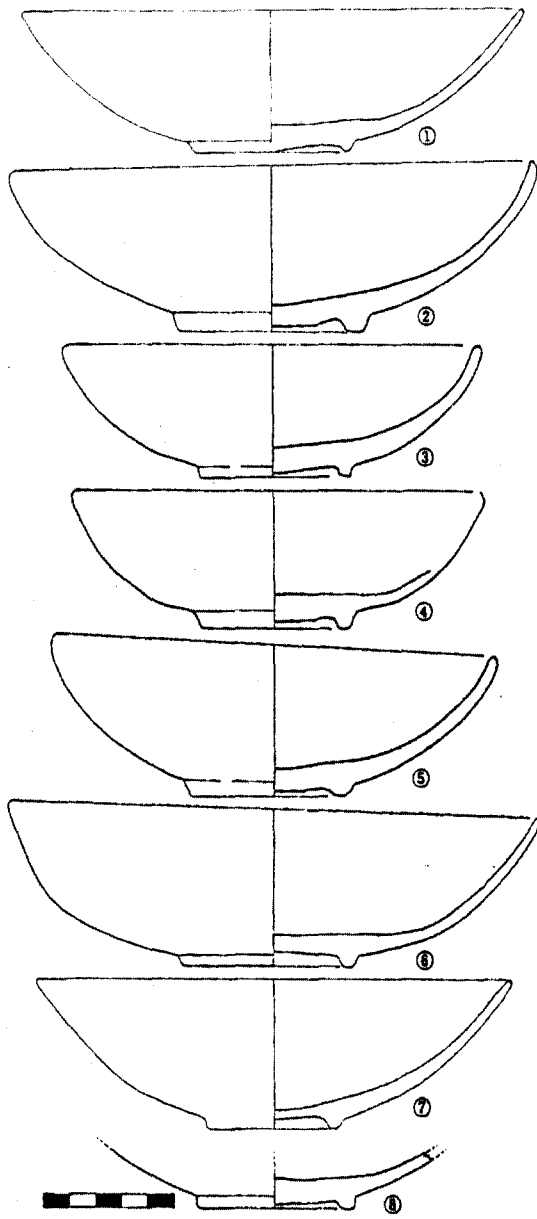


그림 6. 內底曲面中大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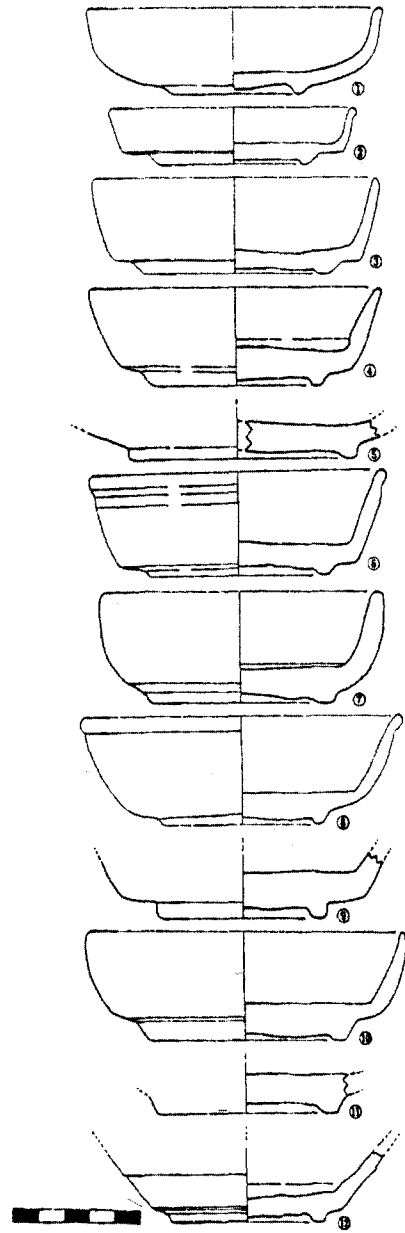


그림 7. 側面斜線形樣匙

표 5. 側面斜線形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7-1	靑瓷象嵌草花文標匙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3.	1271
7-2	靑瓷陰刻線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4.	1271
·	靑瓷象嵌菊花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4.	1271
·	靑瓷陰刻線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4.	1271
7-3	靑瓷陰刻線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4.	1271
7-4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해 강, 1991, p. 78.	1329
·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중앙박, 1992, p. 85.	1329
·	靑瓷象嵌菊花文「庚午」銘標匙	중앙박, 1992, p. 91.	1330
7-5	靑瓷象嵌「庚午」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30
7-6	靑瓷象嵌菊花文「壬申」銘標匙	해 강, 1991, p. 79.	1332
7-7	靑瓷象嵌菊花文「壬申」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32
7-8	靑瓷象嵌菊花文「癸酉」銘標匙	중앙박, 1992, p. 105.	1333
·	靑瓷象嵌「壬午」銘標匙	중앙박, 1992, p. 107.	1342
7-9	靑瓷象嵌「壬午」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2
·	靑瓷象嵌「丁亥」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7
7-10	靑瓷象嵌菊花文「丁亥」銘標匙	開城 伴鷗亭 出土, 중앙박, 1992, p. 110.	1347
7-11	靑瓷象嵌「至正」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1~1356
·	靑瓷象嵌「至正」銘標匙	해 강, 1991, p. 87.	1341~1356
·	靑瓷象嵌「正陵」銘標匙	중앙박, 1992, p. 35.	1365~1374
7-12	靑瓷象嵌「正陵」銘標匙	日本 大宰府 出土, 森田勉, 1985, 도3-25	1365~1374

(6) 側面外反形標匙(표 6, 그림 8)

측면이 곡선을 이루며 구연이 외반되는 기형이다. 13세기대는 구연이 많이 외반되지만 14세기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크기는 높이(3.5~5.5cm 내외)와 口徑(13~17.5cm), 굽너비(0.3~0.6cm) 모두 뚜렷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底徑은 13세기대는 4.5~5.5cm 내외지만 14세기대가 되면 6.1~6.2cm로 매우 커지고 있으며, 기벽도 다른 器種 처럼 14세기대가 되면 두터워지고 있다.

표 6. 側面外反形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8-1	靑瓷象嵌線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4.	1271
8-2	靑瓷陰刻線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3.	1271
8-3	靑瓷陽刻牡丹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3.	1271
8-4	靑瓷標匙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40.	1279
8-5	靑瓷象嵌菊花文「壬午」銘標匙	해 강, 1991, p. 84.	1342
8-6	靑瓷花形標匙	坡州 瑞谷里 古墳, 문화재, 1993, p. 235.	1352

(7) 內底曲面가形標匙(표 7, 그림 9)

內底面이 편평하고 넓으며 내측면과 꼭면을 이루는 기형으로 문양 구성도 내저면과 측사면이 연결되고 있다. 「壬申」명과 「丁亥」銘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14세기대에 등장하는 기형으로 추정된다. 높이 3.5cm, 口徑 11.5cm, 底徑 6.5~7cm, 굽너비 0.4~0.6cm 이다.

표 7. 內底曲面가形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9-1	靑瓷象嵌柳蘆水禽文「壬申」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32
9-2	靑瓷象嵌柳蘆水禽文「壬申」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32
9-3	靑瓷象嵌「丁亥」銘標匙	중앙박, 1992, p. 111.	1347

(8) 內底曲面나形標匙(표 8, 그림 10)

내저면이 매우 넓고 편평하며 높이가 낮은 기형으로 14세기대에 등장하는 기종이다. 높이(3~3.5cm 내외)와 口徑(13.3~18.3cm), 굽너비(0.5~0.6cm) 모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底徑(6~9.4cm)은 후기로 갈수록 기형이 커지면서 넓어진다. 문양은 雲鶴柳蘆水禽文만 확인된다. 내만 구연과 두터운 기벽 등이 14세기대의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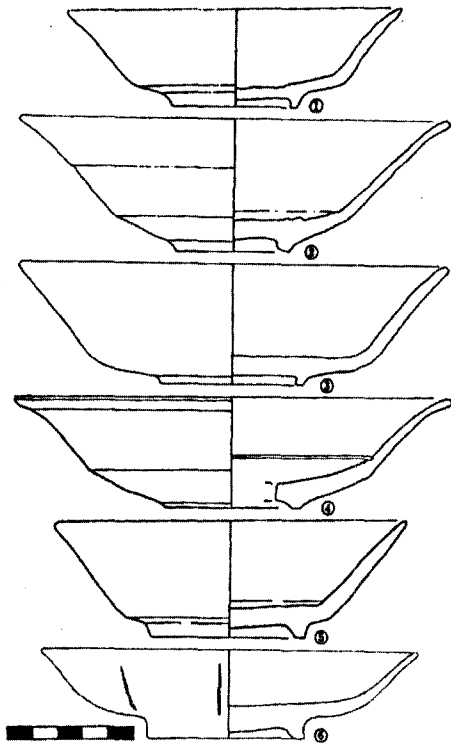


그림 8. 側面外反形椀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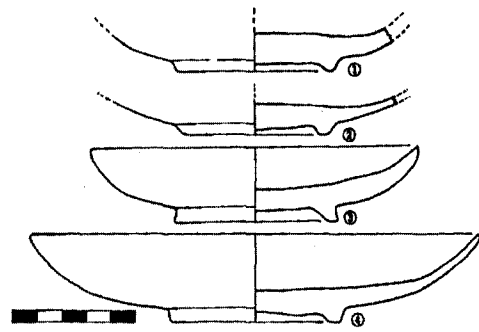


그림 10. 內底曲面ナ形椀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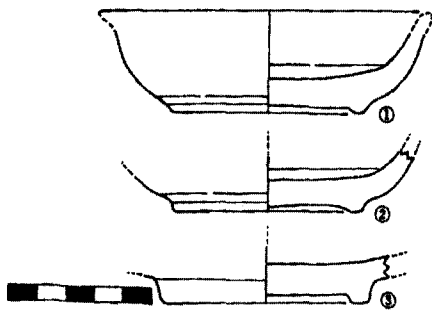


그림 9. 內底曲面가形椀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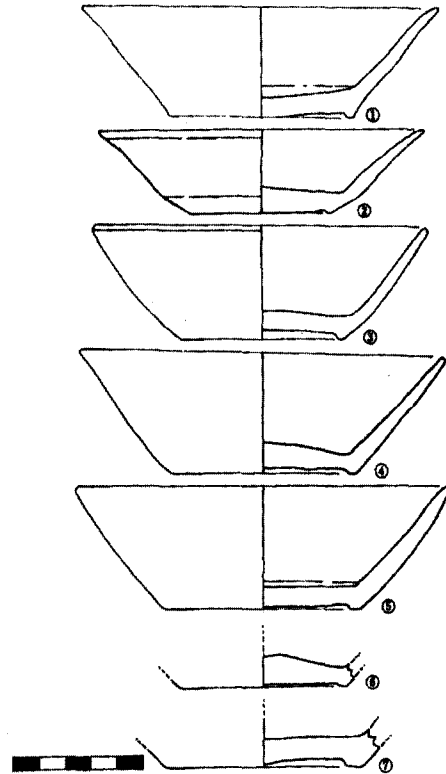


그림 11. 속굽椀匙

표 8. 內底曲面나形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0-1	靑瓷象嵌雲鶴柳蘆水禽文「甲戌」銘標匙	해 강, 1991, p. 87.	1334
10-2	靑瓷象嵌雲鶴文「壬午」銘標匙	중앙박, 1992, p. 107.	1342
10-3	靑瓷象嵌雲鶴文「丁亥」銘標匙	중앙박, 1992, p. 110	1347
10-4	靑瓷象嵌雲鶴文「丁亥」銘標匙	중앙박, 1992, p. 110	1347
.	靑瓷象嵌雲鶴文「丁亥」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7

(9) 속굽標匙(표 9, 그림 11)

外底 바닥면을 꺾어 굽을 성형한 기형이다. 13세기대는 구연부가 외반하면서 측면이 곡선을 이루며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14세기대가 되면 기형이 커지면서 측면이 직사선화되고 기벽이 두터워져 둔중한 느낌을 준다. 또한 13세기는 굽 안바닥 중앙이 接地面과 거의 맞닿아 있으나 14세기가 되면 굽 안바닥 성형이 정연하다. 높이는 13세대는 3.3~4.3cm 14세기대는 4.5~5cm이며, 口徑은 13세기 3.3~4.3cm 14세기 4.5~5cm, 底徑은 13세기 5.5~7cm 14세기 6.2~7.5cm, 굽너비 13세기 0.2~0.3cm 14세기 0.4~0.7cm로 13세기에 비해 14세기가 되면 모든 것이 커지고 있어 기형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9. 속굽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1-1	靑瓷象嵌雷文標匙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3.	1271
11-2	靑瓷象嵌菊花文標匙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40.	1279
11-3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중앙박, 1992, p. 86.	1329
11-4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해 강, 1991, p. 83.	1329
11-5	靑瓷象嵌菊花文「壬申」銘標匙	해 강, 1991, p. 83.	1332
11-6	靑瓷象嵌「癸酉」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33
11-7	靑瓷象嵌「壬午」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2

(10) 八角標匙(표 10, 그림 12)

측면선이 직사선을 이루며 器面을 팔각으로 성형하였다. 13세기대의 얇고 날렵한 기형이 14세기대가 되면 커지면서 매우 두터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이의 경우 13세기대는

3.5cm 내외이며 14세기대는 「癸酉」銘을 기준으로 이전은 4.5~5cm 이후는 5~6cm로 매우 커지면서 둔중해지고 있다. 口徑도 11~12.5cm로 분포하고 있는데 후기로 가면서 커지고 있다. 굽너비는 0.2~1cm로 뚜렷한 차이는 없다.

표 10. 八角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2-1	靑瓷陽刻象嵌牡丹文標匙	明宗 智陵, 해 강, 1991, p. 80.	1255
12-2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중앙박, 1992, p. 87.	1329
.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해 강, 1991, p. 80.	1329
12-3	靑瓷象嵌菊花文「壬申」銘標匙	중앙박, 1992, p. 100.	1332
12-4	靑瓷象嵌菊花文「癸酉」銘標匙	해 강, 1991, p. 81	1333
12-5	靑瓷象嵌「壬午」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2
12-6	靑瓷象嵌菊花文「丁亥」標匙	해 강, 1991, p. 81.	1347

(11) 花形전標匙(표 11, 그림 13)

몸체부를 화형으로 성형한 후 구연부를 심하게 외반시켰다. 濟州 法華寺 출토품은 외측면을 성형하지 않았으나 14세기대의 干支銘은 押出陽刻 후 외측면을 깎아 花形을 만들었다. 14세기대가 되면 기형이 커지고 전의 각도도 이전은 거의 직각을 이루나 둔각을 이룬다. 분양은 내저면 중앙에 명문을 새긴 후 외측면에 국화문을 시문하고 있다.

높이는 13세기대는 2cm 내외이며 14세기대는 3cm 내외이다. 口徑은 13세기 10cm 14세기 14.5~15cm, 底徑은 13세기 4.2cm 14세기 5.5~7.5cm, 굽너비 13세기 0.3cm 14세기 0.4~0.7cm로 기형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花形전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3-1	靑瓷陽刻菊花文標匙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9.	1279
13-2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標匙	중앙박, 1992, p. 88.	1329
13-3	靑瓷象嵌菊花文「壬申」銘標匙	중앙박, 1992, p. 100.	1332
13-4	靑瓷象嵌菊花文「丁亥」銘標匙	강진 사당리 출토	1347
13-5	靑瓷象嵌如意頭文「正陵」銘標匙	正陵 出土, 중앙박, 1992, p. 34.	1365~1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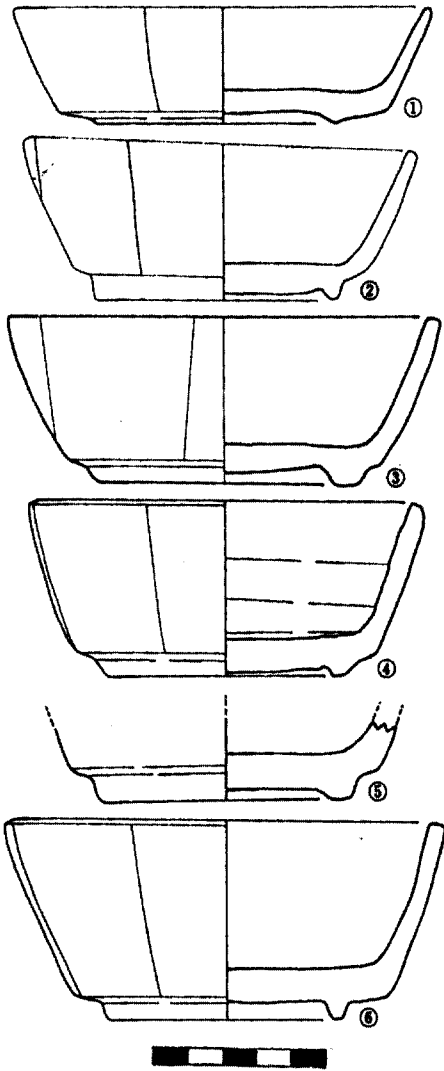


그림 12. 八角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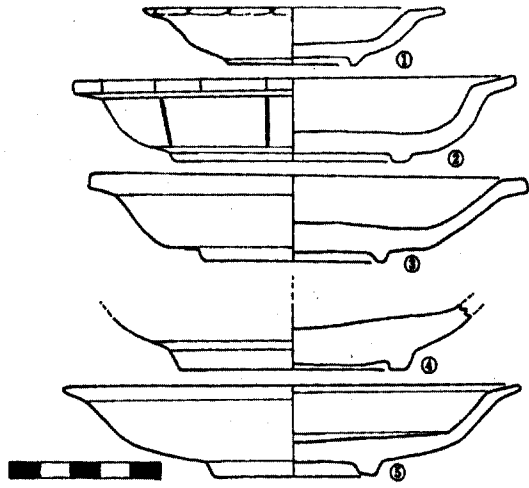


그림 13. 花形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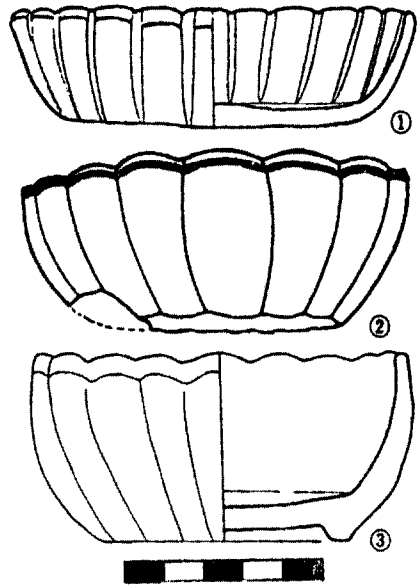


그림 14. 花形椀

(12) 花形標匙(표 12, 그림 14)

기형은 평저형에서 낮은 굽 단계<sup>95)</sup>를 거쳐 안굽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丁亥」銘 접시는 용장성 출토품에 비해 태토와 유색, 장식 기법 등에서 매우 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형 기법의 경우 용장성 출토품은 押出陽刻으로 내면까지 뚜렷하게 성형하고 있으나 江華 許有田墓 출토품과 「丁亥」銘은 도구를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즉, 「丁亥」銘 등은 성형한 접시 내면에 陶范을 대고 외면을 눌러서 花葉을 만들었다. 특히 외측면 각 잎새 사이의 골은 조각도로 깎아 陰刻 성형하였다. 굽 받침도 구석 받침에서 모래 받침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연은 모두 내만하며, 타 기종에 비해 기벽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높이는 13세기대는 3cm 내외이며, 14세기대는 4.5~5cm이다. 口徑은 13세기는 10cm 내외, 14세기는 9.5cm 내외이다. 底徑은 5.5~7cm로 특징적 변화는 없다. 그러나 높이가 커지면서 口徑이 좁아지고 있다.

표 12. 花形標匙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	靑瓷花形標匙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2.	1271
14-1	靑瓷花形標匙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2.	1271
14-2	靑瓷花形標匙	江華 許有田墓, 손보기, 1988, p. 32	1324
14-3	靑瓷象嵌「丁亥」銘標匙	和順 雲住寺, 해 강, 1991, p. 87.	1347

(13) 盞(표 13, 그림 15)

筒形盞은 구연이 내만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잔은 13세기대는 구연이 외만하고 있으나 14세기가 되면 내만으로 변하고 있다. 역시 「壬申」銘 잔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벽이 두터워져 둔중한 느낌을 준다.

표 13. 盞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5-1	靑瓷象嵌荔枝文筒形盞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5.	1271
15-2	靑瓷盞	莞島 法華寺, 문화재, 1992, p. 154.	1271
15-3	靑瓷花形盞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7	1279
15-4	靑瓷象嵌菊花文盞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7.	1279
15-5	靑瓷象嵌牡丹文盞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7.	1279
15-6	靑瓷象嵌雲鶴文「壬申」銘盞	해 강, 1991, p. 86.	1332
15-7	靑瓷盞	坡州 瑞谷里 古墳, 문화재, 1993, p. 236.	1352

95)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1992), pp. 288~289·298~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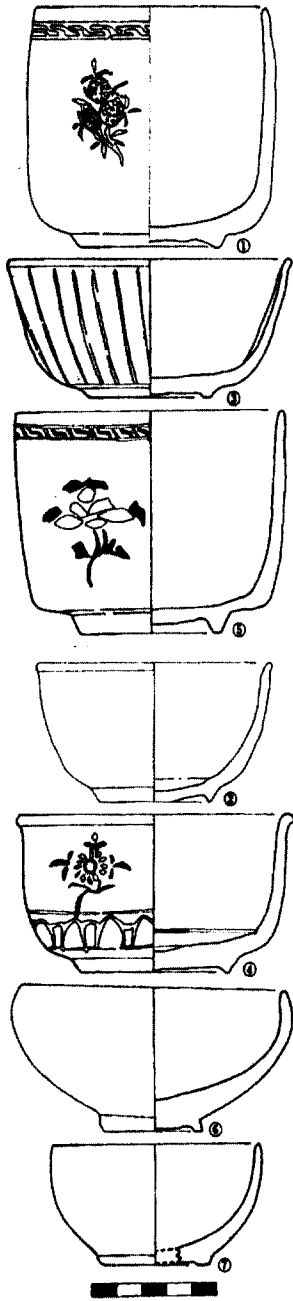


그림 15. 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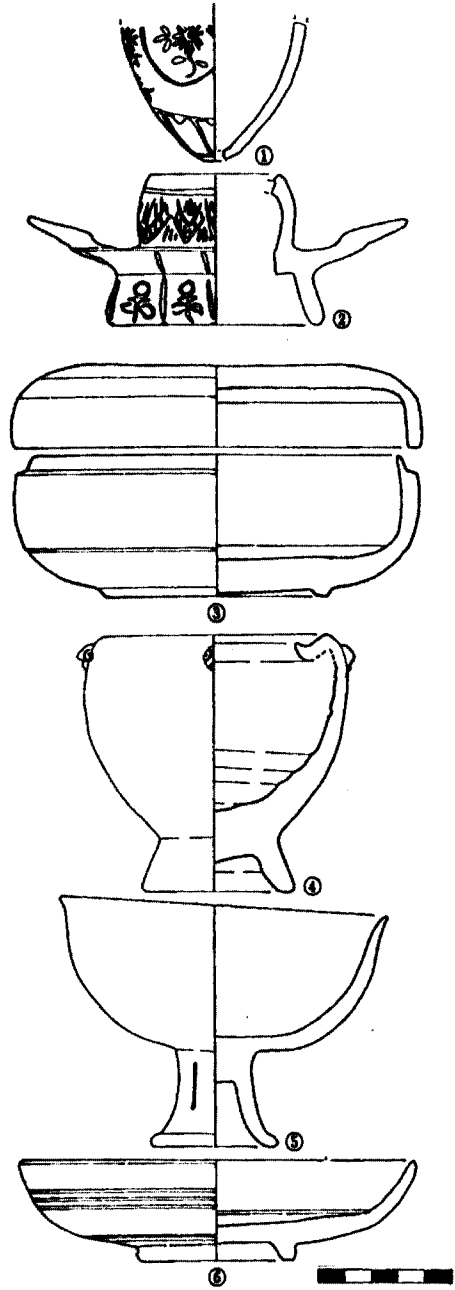


그림 16. 其他 類形

(14) 瓶(표 14, 그림 17)

13세기대 유적 출토품은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면서 저부와 동체부로 연결되고 있으나 14세기에 오면 매병의 저부 곡선이 보다 내만하면서 급격히 휘어져 동체부로 연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14세기말의 「德泉」銘과 「義成庫」銘 매병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문양 역시 14세기가 되면 대부분 크고 단순한 문양으로 변화되며, 扁瓶이 등장하여 제작 비율이 높아지면서 분청자로 연결된다. 굽 안바다 두께는 다른 기종이 14세기가 되면 두터워지고 있는데 비해 얇아지고 있다.

표 14. 瓶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7-1	靑瓷象嵌柳蘆文「良醴」銘扁瓶	중앙박, 1992, p. 41.	1356~1371
17-2	靑瓷象嵌蓮花文「良醴」銘扁瓶	중앙박, 1992, p. 41.	1356~1371
17-3	靑瓷象嵌梅瓶片	珍島 龍藏城, 최성락, 1990, p. 134.	1271
17-4	靑瓷象嵌梅瓶片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6.	1279
17-5	靑瓷象嵌「乙酉司醴署」銘梅瓶	중앙박, 1992, p. 43.	1345

(15) 其他(표 15, 그림 16)

馬上杯는 13세기대에만 확인되며, 高足杯는 14세기 元의 영향으로 발생하여 분청자로 연결된다.<sup>96)</sup> 이들은 비실용적인 馬上杯에서 실용적인 高足杯로 기형이 변화된 것으로 추정된다.<sup>97)</sup> 松廣寺 慈靜國師 妙光塔 出土 舍利盒 뚜껑은 全面에 주문양과 종속문양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干支銘 이후 14세기 말기 청자에 보이는 圖式化된 全面 施文의 시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1204년 神宗 陽陵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13세기와 14세기 청자의 문양 변화를 알려 주고 있다. 「公須」銘 標匙는 慶州邑城에서 「公須」「慶州公須」銘 粉靑瓷가 출토되어 銘文 전통이 분청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己巳」銘에서 시작된 銘文이 官司銘을 거쳐 朝鮮 官司銘 粉靑瓷까지 연결되고 있다.

96) 國立全州博物館, 『高麗末 朝鮮初의 美術』(1996), p. 19.

97) 이들을 기존에 모두 馬上杯라고 명명하고 있어 기능의 유사성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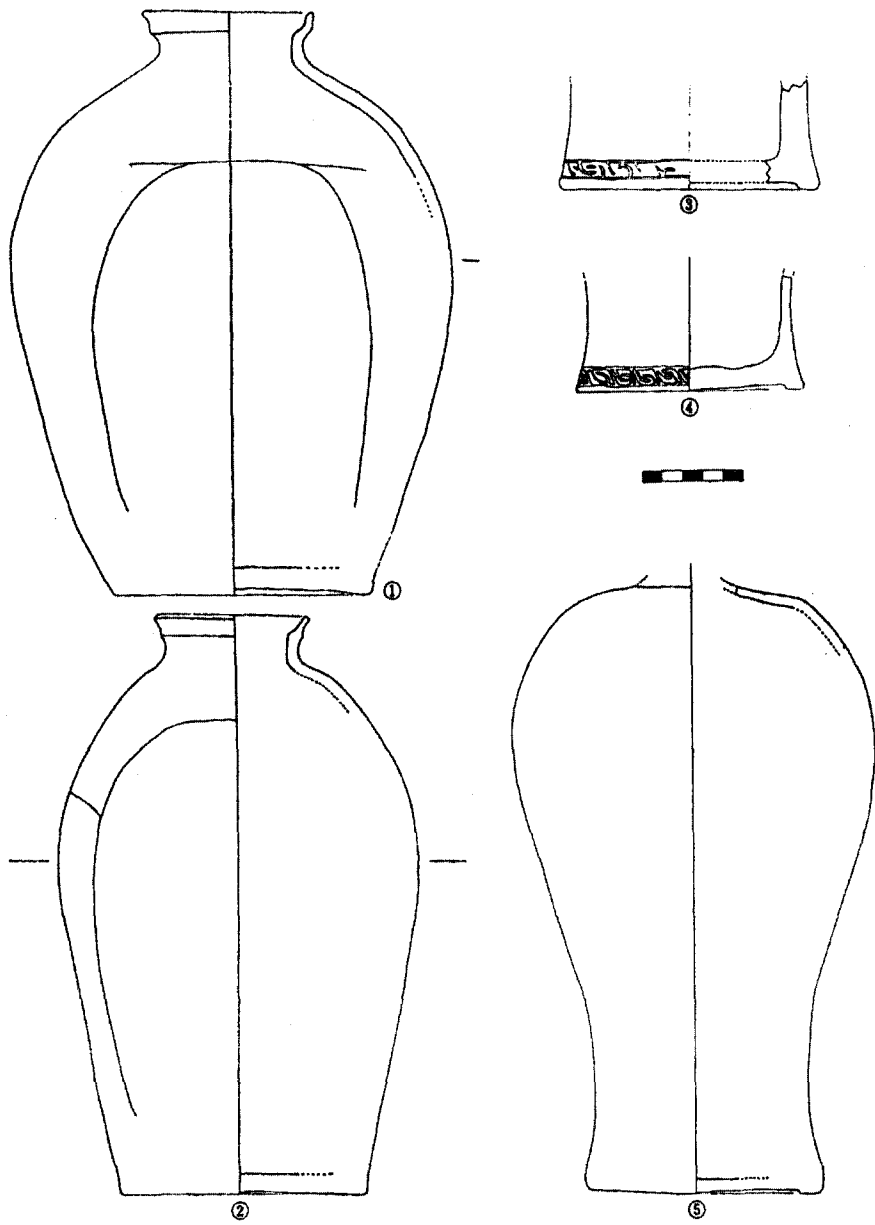


그림 17. 瓶

표 15. 其他 類形 現況

그림 번호	유물명	출전	시기
16-1	靑瓷象嵌菊花文馬上杯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7.	1279
16-2	靑瓷陰刻花形蓋托	濟州 法華寺, 제주대, 1997, p. 136.	1279
16-3	松廣寺慈靜國師妙光塔出土 靑瓷象嵌雲鶴文盒	송광사 심보박물관 소장	1301
16-4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四耳壺	해 강, 1991, p. 84.	1329
16-5	靑瓷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	해 강, 1991, p. 86.	1332
16-6	靑瓷象嵌柳蘆水禽文「公須」銘標匙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 V. 맺음말

고려 후기는 대몽항쟁과 원 간섭기, 왜구의 잦은 침입 등 외적 요인과 내적으로는 무인집권층과 권문세족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 심했던 시기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파행적 정치가 계속되어 사회적 모순이 매우 악화되었다. 또한 所의 해체가 가속화되어 전문적 분업화로 제작되던 도자 생산은 점차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청자는 중앙 통제의 해이와 수요층의 증가로 생산과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그 질이 쇠퇴하여 분청자로 이행된다. 한편 대몽항쟁 중 남해안 지역은 무신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였던 곳으로 康津地域을 중심으로 한 도자 제작 역시 급격한 하락이 아닌 점진적 쇠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대몽항쟁은 청자의 쇠퇴 원인은 되었으나 이것이 곧바로 질적 하락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며, 이후 원 간섭기와 왜구의 잦은 침입 등 고려 사회의 침체와 함께 점차 쇠퇴하였던 것이다. 특히 왜구에 의한 남해안의 많은 피해는 康津地域 청자의 질을 더욱 하락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3세기대 청자는 12세기대 전성기 청자에 비해 기형과 문양 등에 있어 부분적으로 도식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단정하면서도 사실적인 자연스러움이 있다. 받침은 硃石 받침을 중심으로 耐火土 받침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釉도 翡色에 비해 떨어지지만 전성기의 여운이 남아 있다. 또한 12세기처럼 순청자의 비중이 높다. 이는 明宗 智陵과 崔沆 墓, 珍島 龍藏城, 莞島 法華寺, 濟州 法華寺 출토품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3세기대 청자는 전성기의 여운을 간직하면서 대몽항쟁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14세기가 되면 실용성과 기능성이 강조되면서 기형은 대형화되면서 둔중해진다. 구연은 대접의 경우 대부분 내만되며, 굽도 13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문양은 간략화되거나 집단 문양이 반복되는 등 도식화 양식화되고 있다. 유색은 黃色調와 褐色調의 점차 어두운 색조로 변해가고 있으며, 태토도 모래가 많아지는 등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그리고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 청자에서 보는 것처럼 순청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釉色 퇴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새로운 양식의 高足杯와 扁瓶, 內底曲面式 樑匙 등이 등장하여 분청자로 이행된다. 甕形大樑과 平底鉢은 대접이 대형화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여 소멸되며, 馬上杯는 보다 실용적인 高足杯로 전환되면서 소멸된다.

한편 14세기가 되면 청자의 쇠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干支銘 등 다양한 銘文 청자가 등장한다. 간지명 청자의 제작 시기는 제작지인 康津地域의 정세와 13세기 유적 출토 청자의 비교를 통해 14세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지명 청자는 「己巳」銘(1329년)~「甲戌」銘(1334년)과 「壬午」銘(1342년)~「乙未」銘(1355년) 시기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자는 규석 받침을 중심으로 全面 施釉를 하고 있으나, 후자는 질이 더욱 떨어져 모래 받침과 태토 받침이 중심을 이루며 굽바닥과 굽 안바닥의 유를 닦아낸 후 번조하고 있다. 기형은 보다 커지면서 둔중해지고 유색도 더욱 어두운 색조로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務安 道里浦로 대표되는 말기 청자로 이어지는데 문양은 생략되거나 간략화된 반복 문양이 듬성듬성 거칠게 시문된다. 그리고 모래 받침보다 태토 받침의 비중이 높아지며, 굽 바닥 유는 施釉 후 모두 닦아낸 후 燻造하고 있다. 무안 도리포 단계를 지나면 고려 청자는 왕조의 교체와 함께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陶瓷 전통인 粉靑瓷로 이행 발전되면서 소멸한다.

이 글에서는 기형 변천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문양과 燻法 등을 심층적으로 살피지 못했다. 그리고 도자의 기능적 변화가 器種과 器形에 미치는 영향 또는, 반대로 기종과 기형이 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지 못했다. 또한 기와와 金鼓, 銅鍾 등 다른 미술품에 시문된 당초문과 연판문 등 동일 문양에 대한 비교 검토도 앞으로 있어야 하겠다.

[ABSTRACT]

## Changes in the Shape of Celadon Ware during the Late Koryŏ Dynasty

Han Sung-uk

During the late Koryŏ dynasty one finds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that could have mad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rt, such as resistance against Mongols, the interference of Yuan, the rebellion of Honggŏnjŏk 紅巾賊 and frequent invasions of Japanese pirates and severe exploitations by military ruling class and influential families. Consequently politics continued to be crippled, and social disorder was aggravated. This period marked the decline of Koryŏ dynasty and was finally led to its fall.

In this period the collapse of *so* 所 system was accelerated, celadon produced by professional specialization resulted in lowering its quality. Accordingly, as production and supply of celadon were extended due to relaxation of governmental control and increase of demanders, its quality was lowered and then changed into *punch'ŏng* 粉青 ware. On the one hand, the South coast region was the place where established the economic foundation of military government during the resistance against Mongolia and the quality of celadon produced centering around Kangjin region showed a gradual decline not a sudden fall. That is, the resistance against Mongolia was a cause of decline of celadon, but it didn't cause its qualitative deterioration and after that, it was gradually declined with interference of Yuan Dynasty, frequent invasions of Japanese pirate raiders and stagnation of Koryŏ society. Especially, a lot of damages of the South coast region by Japanese pirate raiders became a decisive factor of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celadon at Kangjin region.

The celadon of the 13th century developed the schematization partially in its shape and pattern compared to that of the 12th century in its gold age, but it had the neat and real naturalness. Fire-clay support centering around silica support was partially used and it has the aftertaste of jade green in its golden

age. Also it shows a great proportion of pure celadon like that of the 12th century. It was also confirmed in the excavated articles of King Myōngjong's tomb, Choi Hang's 崔沆 tomb, Yongjang 龍藏 Castle on Chindo 珍島, Pōphwasa 法華寺 on Wando 莞島 and Pōphwasa 法華寺 on Chejudo 濟州島. Therefore, the celadon of the 13th century has the aftertaste of jade green celadon in its golden age, but it was declined gradually due to social conditions such as the resistance against Mongolia.

In the 14th century, as such a tradition emphasized a practicality and functionality, shape of celadon became thick, large and dull. Its lips was mostly curved toward inside and its feet was wider than those of the 13th century. Its patterns were simplified or group patterns were repeated, schematized and stylized. In glazing, it was changed into dark color gradually having yellow and brown colors and its ground clay became harsh as times went by. And as the celadons excavated under the sea at Torip'o 道里浦, Muan 務安 showed, the proportion of pure celadon was decreased and it is considered that it was a natural result due to the degeneration of glaze. Also in the 14th century, as a cup with long leg (高足杯 *kojokpae*), an angled bottle (扁瓶) and a bowl with curved treated bottom of new styles appeared, it was transferred to *punch'ōng*. As bowls had been large sized, large and small bowls losing its functions were disappeared, and *masangbae* was converted into more practical *kojokpae* and then disappeared.

On the one hand, in the 14th century, celadons with incipations including cyclical years appeared as the means for inhibiting the qualitative decline of celadon. It is found that the period of making dated celadon was the 14th century by the state of things of Kangjin region and through the comparison of it to the excavated articles of the 13th century. In addition, periods of manufacturing dated celadons are divided into the period from Kisa 己巳 (1329) to Kapsul 甲戌 (1334) and the one from Imo 壬午 (1342) to Ŭlmi 乙未 (1355). While the former applies the glaze to the whole surface centering around the silica support, the latter burnt it after polishing the glaze at feet bottom and the inside of feet bottom centering around sand support and ground clay support because quality of ceramics might be deteriorated. Its shapes became large size and dull and jade green colors were changed into dark color. These changes were continued to the celadon of the late period at Torip'o, Muan and its patterns were omitted or simplified and repeated

patterns were shown sparsely. A proportion of ground clay support was higher than that of sand support and glazing foot bottom was burnt after polishing it. The Koryŏ celadon was transferred and developed to *punch'ŏng* of a new ceramic tradition which represents the early period of Chosŏn Dynasty with the change of Dynasty and then it disappeared.